

금융사기

예방과 노후자산정리



02



금융사기 예방과 노후자산 정리



발간사

금융감독원은 고령층의 행복한 노후생활 설계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년기에 꼭 필요한 금융지식과 생활정보를 담은 『반짝반짝 은빛 노후를 위한 금융가이드』 책자를 2018년에 발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책자에는 노후자산 관리방법 등을 다룬 『탄탄한 노후를 위한 금융생활설계』, 내 자산을 잘 지키고 물려주기 위한 『금융사기 예방과 노후자산 정리』, 그리고 고령층도 알아야 하는 디지털금융에 대해 알려주는 『바로 지금! 꼭 알아야 할 디지털금융』 등 총 3권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은퇴후 생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문제들을 어르신들 눈높이에 맞게 쉽게 풀어내어 좋은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초판 발간 이후 최고금리 인하, 신용점수제 도입,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고 금융거래도 비대면·온라인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등 디지털 금융이 확산되고 있어 변화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자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021.6월 모바일뱅킹 등의 내용을 보완하여 『바로 지금! 꼭 알아야 할 디지털금융』 개정판을 발간한 데 이어, 2022.3월에 나머지 2권에 대한 개정판도 새로이 내놓게 되었습니다.

개정판에서는 청약철회권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강화된 소비자 권리 등을 안내하고 비대면거래 증가에 따른 신종사기 수법과 대응방법을 추가하는 한편,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높아진 관심도를 반영하여 주식투자 단원을 신설하고 투자 유의사항과 절세방법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가이드북이 고령층 금융생활 지침서로 널리 활용되어 안정되고 풍요로운 노후계획을 수립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코로나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개정판 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이화여대 주소현 교수님을 비롯한 집필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3월

금융감독원 원장 정은보

정은보





| 머리말 |

노후에 접어들면 일, 건강, 시간, 인간관계 등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은퇴 및 수입의 감소 등으로 인한 경제적 변화입니다. 원하는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후에 안정적으로 생활비를 조달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경제적인 환경이 빠르게 변화되는 상황에서 재무와 금융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본 교재는 노년기에 꼭 필요한 금융생활을 중심으로 총 3권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1권 “탄탄한 노후를 위한 금융생활설계”는 은퇴 후 정기적인 수입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일자리 및 연금에 대한 정보와 고령층에게 적합하고 고령층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여 노후자산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권 “금융사기 예방과 노후자산 정리”는 안정된 노후를 위협하는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과 함께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위해 준비해야 할 내용들을 함께 구성하였습니다.

제3권 “바로 지금! 꼭 알아야 할 디지털금융”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한 디지털금융이 우리 생활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 노년층도 이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디지털금융 이용법과 금융정보 조회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교재는 노후 금융생활에 도움이 되는 주제를 하나씩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양한 금융생활 중 평소 궁금하였던 주제만을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와 함께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생활 환경에 잘 적응하며 보다 편안하고 따뜻한 노후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2022년 3월
저자 일동





| 들어가는 말 |

편안하고 안락한 노후는 모든 어르신들이 꿈꾸는 생활일 것입니다. 무탈하게 여생을 마무리하고, 또 사후에 자손들에게 베풀 수 있는 여유까지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편안한 노후를 위협하는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의 경우,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 충격은 여생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메신저 피싱이라고 불리는 금융사기의 경우 60대 이상의 피해규모가 전체 피해액의 41.4%를 차지하는 등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합니다.

본 권은 이처럼 안정된 노후를 위협하는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을 알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하여 준비해야 할 사항도 담았습니다.

제1편 “금융사기 예방하기”에서는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메신저피싱, 신용카드 관련 사기 등 금융 사기의 주요 행태와 피해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2편 “생애 마지막 준비하기”에서는 아름답게 삶을 마무리하기 위해 남아있는 가족들과 함께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정리하고, 장례를 준비하는 방법과 함께 유언장 작성, 상속 및 증여 방법과 상속 및 증여세 관련 내용을 포함하였으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차례

PART

01

금융사기 예방하기

Chapter 01 **금융사기 10**

01 금융사기란? 10

Chapter 02 **보이스피싱 11**

01 보이스피싱이란? 11

02 보이스피싱의 유형: 공공기관사칭형 13

03 보이스피싱의 유형: 대출빙자형 16

04 보이스피싱의 유형: 납치빙자형 21

05 보이스피싱의 유형: 정부지원 사업 빙자형 22

06 보이스피싱의 예방 24

07 보이스피싱 목소리 미리 들어보기 27

08 대포통장 빌려주어도 처벌 29

Chapter 03 **파밍 30**

01 파밍이란? 30

02 파밍의 예방 32

Chapter 04 **스미싱 34**

01 스미싱이란? 34

02 스미싱의 예방 35

Chapter 05 **메신저피싱 36**

01 메신저피싱이란? 36

02 메신저피싱의 예방 39

Chapter 06 **금융사기에 대한 대처 40**

01 금융사기를 당했다면? 40

02 금융사기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해야 할 일 41

Chapter 07 **유사수신 43**

01 유사수신이란? 43

02 유사수신의 예방 44

03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하기 45

04 유사수신 사례 47

PART

02

생애 마지막
준비하기

Chapter 08 **신용카드 사기** 51

- 01 신용카드를 이용한 사기의 유형 51
- 02 신용카드 사기 사례 51
- 03 신용카드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53

Chapter 01 **재산의 정리** 58

- 01 자산과 부채 정리해두기 58
- 02 내 금융자산 찾기 위한 파인 접속 방법 59
- 03 내 금융계좌 찾아보기 60
- 04 내 보험 찾아보기 63
- 05 내 주식 찾아보기 66
- 06 내 자산을 모두 찾았다면 69
- 07 노후자산관리를 위한 임의후견인제도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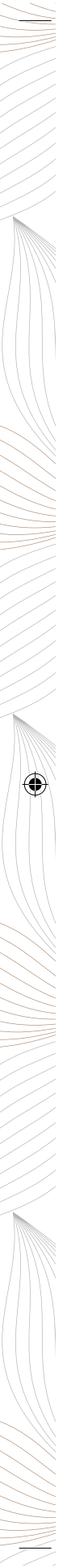
Chapter 02 **삶의 정리** 72

- 01 웰다잉 72
- 02 장례방법 정해두기 76
- 03 상조회사 79
- 04 상조서비스 피해 대처하기 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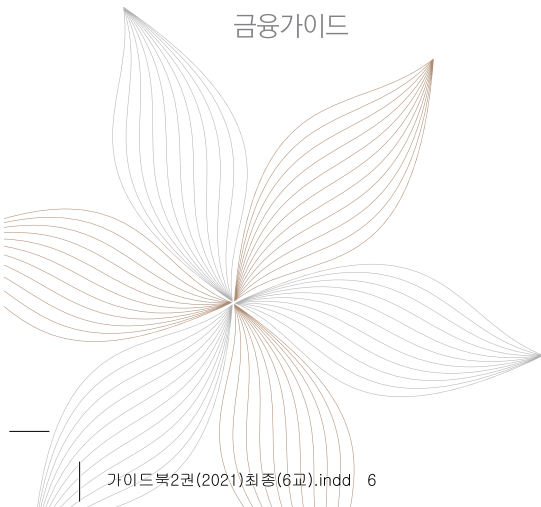
Chapter 03 **상속과 증여** 83

- 01 상속과 증여란? 83
- 02 유언상속 84
- 03 우리나라 상속제도의 특징 86
- 04 부채도 상속될까? 89
- 05 증여제도 이해하기 90
- 06 상속세와 증여세 92
- 07 상속세 계산방법 93
- 08 증여세 계산방법 96
- 09 상속 및 증여세 관련 정보 98

참고 금융회사 콜센터 현황 99



반짝반짝 은빛 노후를 위한
금융가이드





Part 01

제1편

금융사기 예방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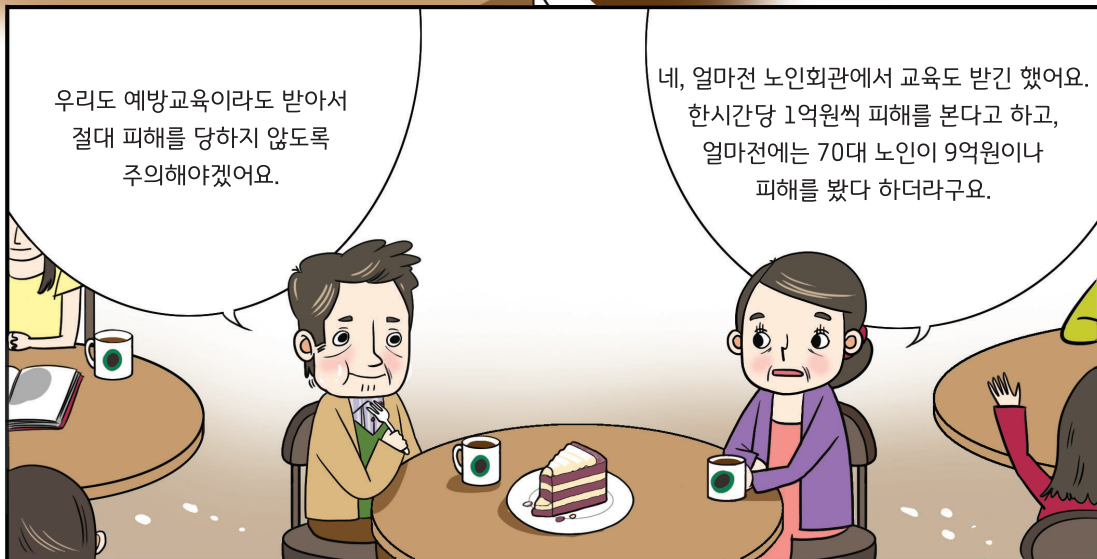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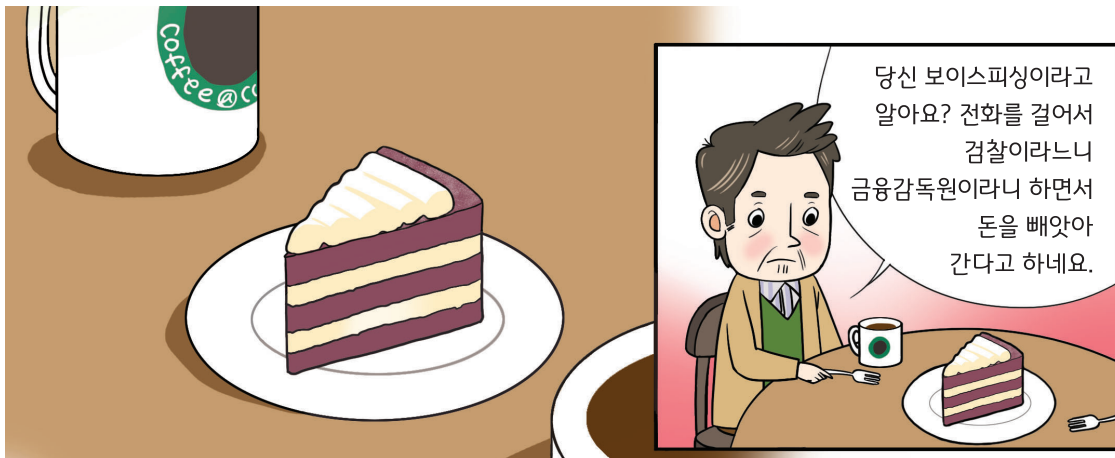


Intro

금융사기는 금융환경의 발전에 따라 그 종류나 수법이 지능화 되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의 노후자금을 노리는 금융사기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1편 “금융사기 예방하기”에서 금융사기의 종류, 형태, 수법 등을 미리 배워두신다면 금융사기피해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01 금융사기란?

금융사기는 다른 사람을 속여서 돈을 빼앗아 가는 범죄행위입니다. 그 수법이나 형태도 다양하며 사회가 발전하는 만큼 금융사기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 대표적인 금융사기 형태

- ① 보이스피싱 : 전화를 통해 피해자를 속이는 금융사기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② 파밍 : 가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 개인정보 등을 알아내어 돈을 가로채는 금융사기입니다.
- ③ 스미싱 : 휴대전화 문자메세지(SMS)를 이용, 소액결제 등을 통해 돈을 빼내어가는 금융사기입니다.
- ④ 메신저피싱 : 스마트폰 등의 메신저(카카오톡, 밴드 등)에서 가족이나 친구 등을 사칭하여 돈을 가로채는 금융사기입니다.



보이스피싱

01 보이스피싱이란?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은 전화로 피해자를 속이는 금융사기입니다. 속임수나 거짓말로 돈을 보내게 하여 가로채거나 개인정보를 탈취하여 돈을 빼내는 대표적인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 ▶ 보이스피싱은 영어로 목소리란 뜻의 Voice, 개인정보라는 뜻의 Private Data와 낚시를 뜻하는 Fishing을 합성한 말입니다.

❖ 보이스피싱의 특징

① 정부기관, 금융회사 등을 사칭

사기범들은 피해자들에게 쉽게 접근하여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검찰, 경찰, 금감원 등 정부기관이나 은행 등 금융회사를 사칭합니다.



② 유창한 한국어와 전문적인 용어

사기범들은 예전처럼 어눌한 우리말을 쓰지 않습니다. 실제 한국사람들이 직접 가담하기 때문에 정확한 한국어를 구사하며 금융권이나 공공 기관의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③ 조직적인 역할 분담

여러명의 사기범들이 각자 역할을 맡아 피해자를 현혹하기도 합니다.



4 발신번호 조작

사기범들은 보이스피싱을 눈치챌 수 없도록 전화번호를 사칭하는 기관의 번호 등으로 조작합니다.



5 심리적인 압박

사기범들은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자녀납치 등 거짓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피해자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6 대포통장 이용

사기범들은 대포통장(타인 명의의 통장)을 사용합니다. 낯선 사람 명의의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할 경우에는 대포통장이 의심되므로 절대 돈을 보내면 안 됩니다.



02 보이스피싱의 유형 : 공공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피해자를 속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은 공공기관 사칭, 대출 빙자, 자녀 납치협박, 정부지원사업 빙자 사기가 있습니다.

❖ 공공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입니다. 사기범들은 유창한 말투로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면서, 여러명이 조직적으로 활동하며, 가짜 인터넷 사이트, 공문서 등도 보여주어 진짜 공공기관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피해자들을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대포통장 사건 등에 연루되었다는 말로 압박하고,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가로채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공공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 (1)

● 검찰수사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

A씨(60대, 남)는 어느 날 자신을 검찰수사관이라고 말하는 B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B는 “범인을 검거했는데 범인이 A씨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계좌 안전조치를 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 가까운 현금지급기로 가서 기다리십시오”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를 믿은 A씨가 현금지급기로 가자 금융감독원 직원이라며 자신을 소개한 C의 전화를 받았고, C는 계좌 및 예금 안전조치를 위해 A씨의 예금을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하는 국가안전계좌라는 곳에 예금하도록 지시했습니다.

A씨는 예금 안전조치라는 C의 말을 믿고 지시대로 예금을 송금했습니다. B, C를 비롯한 사기범 일당은 A씨가 예금액을 모두 송금할 때까지 통화를 계속하며 A씨를 현혹했습니다.

A씨가 예금액 1,300만원을 모두 송금하자 금융감독원 직원이라던 C는 자신이 다시 연락할테니 먼저 연락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고, 사기범 일당은 A씨가 송금한 돈을 모두 인출하여 잠적했습니다.



❖ 공공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 (2)

● 한전의 전기요금 연체 안내를 사칭

A씨(70대, 여)는 어느 날 한국전력 콜센터 직원(사기범 B)이라는 여성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여성은 “6개월간 전기요금이 연체됐다”고 하면서 납부를 독촉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요금을 꼬박꼬박 내서 연체한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여성은 “아마 고객님의 은행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돼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금융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얼마후에 A씨에게 사기범 C가 전화를 하여 본인을 경찰이라고 소개하면서 “A씨의 은행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큰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정기에금을 해지한 뒤 현금으로 찾아서 일단 집안의 냉장고에 당분간 보관하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걱정이 된 A씨는 정기에금 1,000만원을 해지하여 냉장고에 넣어 두었는데 돈이 사라졌습니다.

출처: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3년여간 1조7437억 피해...농한기 농촌어르신 노린다 - 농민신문 (nongmin.com)





03 보이스피싱의 유형 : 대출빙자형

❖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최근 들어 가장 많은 피해유형입니다. 대출 빙자형 보이스 피싱은 전체 보이스 피싱 피해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전화나 문자메세지 등으로 대출 상담 등을 가장하여 접근한 후 대출진행을 위해 돈을 보내도록 요구하거나 대출을 받게 한 후 이를 가로채기도 합니다.

❖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의 특징

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기 쉽습니다. 사기범들은 가짜로 재직증명서, 사원증 및 주민등록증까지 보여주며 접근하므로 속기 쉽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들은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의 대표적 특징입니다.

- ❶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며 접근하여 수수료, 예치금, 보험료, 공탁금 등을 요구합니다.



금리는 6%까지 가능하신데. 신용점수가 좀 낮으시네요.
먼저 예치금으로 300만원만 입금해주시면 2천만원까지 대출 가능하세요.

- ❷ 햇살론, 국민행복기금 등 정부지원 정책자금을 받기 위해 고금리대출을 먼저 받아야 한다고 하며, 실제 대출을 받게 되면 이를 가로칩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민행복기금 아시죠?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드
리는데 먼저 고금리 대출을 받으시면 저희가 나머지는 진행시켜드려요.



- 3 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점수를 높여야 하며 거래실적 명목이나, 보증보험 보증료 납부를 요구합니다.



단기간에 신용점수를 상향시킬 수 있는데 채무상환능력평가라는 방법입니다. 고객님의께서 대출을 발생시키고 일시에 상환하시면 됩니다.

- 4 대출 후 발생할 수 있는 채권추심 등에 대비한 공증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되었잖아요. 금전소비대차 공증서 발급으로 진행해 드릴 건데요. 승인은 나오셨구요.

- 5 대출을 받기 위해 통장 또는 휴대전화 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통장사본, 체크카드, 휴대전화 등을 보내달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주시구요. 저희가 쿼기사항을 보내드릴건데요. 주소를 불러주세요. 체크카드는 배송금지 품목이니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박스로 잘 포장해서 보내주세요.

- 6 최근에는 직접 금융회사 직원을 보내서 대출금 상환이나 수수료 등을 받아가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중복으로 대출을 받으셔서 내일부터 금융거래가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는데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직원에게 직접 전해 주세요.



❖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 (1)

● 가짜 홈페이지를 만들어 유인한 후 수수료 등을 요구

대출이 필요하던 A씨(60대, 남성)는 ○○저축은행에서 저금리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문자메시지에 연결되어 있는 위조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한 가짜 대표전화로 전화를 하여 대출을 문의하였습니다.

잠시 후 자신을 △△△대리라고 소개한 사기범으로부터 금리 7.5%에 2천만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었습니다.

이후 사기범은 대출수수료로 10만원을 납부해야 하고, 신용점수가 낮아 대출금에 대한 예치금이 필요하다는 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A씨가 수수료와 예치금을 송금하자, 사기범은 대출금액 증액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며 추가 예치금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화가난 A씨가 사기범의 제안을 거절하고 이미 송금한 돈을 반환해달라고 하자 사기범은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습니다.



❖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 (2)

● 위조된 재직증명서로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

L씨(40대, 남)는 자신을 OO은행 업무지원부 △△△ 대리라고 소개한 사기범으로부터 금리 4%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L씨가 사기범이 실제로 금융회사 직원이 맞는지 의심을 하자, 위조된 신분증과 재직증명서를 휴대폰으로 보내주면서 개인정보니 확인만 하고 삭제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L씨는 금융회사 직원으로 확신하고 사기범의 요구대로 대출보증금 7백만원을 송금하였으나, 결국 사기범은 이를 인출하여 잠적하였습니다.

위조된 주민등록증



위조된 재직증명서

재 직 증 명 서		
직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회사	상 호	OO 은행
	직명 및 직위	OO 은행 업무지원부 - 대리
	담당 분야	마이너스통장 대출
	재 직 기 간	년 월 일부터 2016년 05월 18일 (현재재직중)
<p>상기인은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증명을 증명함</p>		
<p>상 호 : kb 국민은행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3 여의도본점 사업자등록번호 : 201-81-6869 대 표 전 화 : 1599-9563 대 표 인 : 윤종규(인)</p>		



❖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 (3)

● 확인전화를 가로채는 신종 보이스피싱

A씨는 한 저축은행의 저금리 대출 광고문자를 본인의 휴대폰으로 받았습니다. 돈이 필요했던 A씨가 광고문자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자 전화를 받은 사기범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며, 상담을 위해 상담용 앱을 깔도록 요구하였습니다. A씨는 안내대로 앱을 설치하였습니다.

A씨가 대출상담을 계속하면서 의심을 하자 사기범은 금융감독원에 확인해보라고 하였습니다. A씨는 곧바로 본인의 휴대폰으로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하였으나, 다른 사기범이 전화를 받아 금융감독원이 맞고, 대출을 진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저축은행 대표번호로도 전화를 하였으나 또 다른 사기범이 받아 모두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사기범들의 요구에 따라 거래실적을 쌓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내준 돈을 사기범들이 알려준 계좌로 나누어 보내주었습니다. 사기범들은 ‘돈세탁’을 위한 대포통장으로 A씨 계좌를 이용한 것입니다.

처음에 보이스피싱 일당이 요구한 대로 깔았던 상담앱은 악성코드가 심어진 가짜 앱이었고, 전화를 걸면 가짜 앱으로 인해 금융감독원이나 저축은행이 아닌 사기범들에게 전화가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도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04 보이스피싱의 유형 : 납치빙자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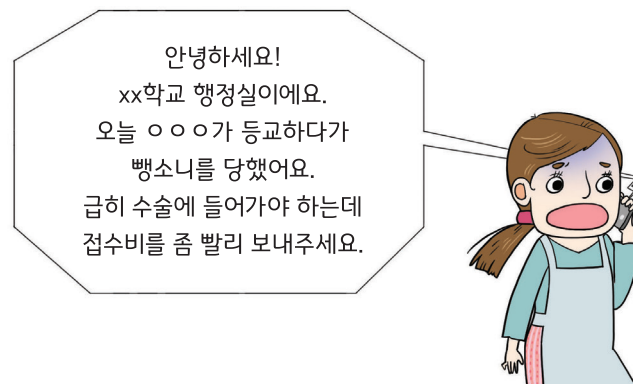
❖ 납치빙자형 보이스피싱

학교에 다니거나 군에 간 자녀, 해외에 유학 중이거나 거주 중인 자녀 등 가족을 납치하였다고 속이며 돈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입니다. 가족 등의 전화번호를 위조하거나 가족의 이름, 나이 등을 정확히 말하면서 욕설을 섞어가며 큰소리로 위협하고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것과 같은 상황을 연출하면 피해자는 크게 당황하여 사기범의 요구대로 돈을 송금하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 사고빙자형 보이스피싱

때로는 자녀나 가족이 사고를 당해 수술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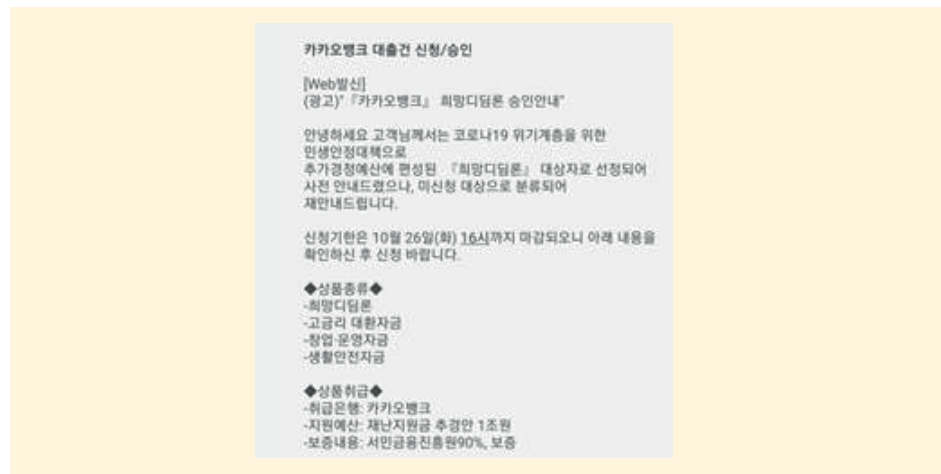
05 보이스피싱의 유형: 정부지원 사업 빙자형

❖ 정부지원사업 빙자형 보이스 피싱

최근에는 정부지원사업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해당 시기에 진행되고 있는 정부지원사업(예, 코로나19 재난 지원금,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지원 등)을 빙자하여 거짓 안내를 하며 사기행각을 벌입니다. 실제 2021년에는 정부 지원 사업을 빙자한 보이스 피싱이 매우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 정부지원사업 빙자형 보이스 피싱 사례 (1)

A씨는 코로나 19 위기계층을 위한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실행하는 특별 대출의 대상자가 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특히 해당 문자에는 보이스피싱과 금융사기 등에 주의하라는 경고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마감이 매우 촉박하니 빠르게 신청하라는 내용의 안내가 있어서 해당 문자메시지의 발신지로 전화를 하였습니다. 특별히 대출 금액도 상향되어 승인되었다고 하면서 1~2일 이내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재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문자는 보이스피싱이었고 실제 A씨는 위기계층도 아니었습니다.





❖ 정부지원사업 빙자형 보이스 피싱 사례 (2)

대구에 사는 B씨(50대 남성)는 사기범에게 전화를 받아 재난지원금 수령대상이지만 대출이 있어 수령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니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B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금융감독원에 직접 전화하여 확인하였는데 금융감독원 직원의 행세를 한 또 다른 사기범에게 대출 잔액이 있으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B씨는 농협을 방문하여 사기범이 시키는 대로 중고차를 사기 위한 대금이라고 하면서 3,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은행 직원은 현금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 증빙이 되기 어렵고 보이스피싱 사례도 많기 때문에 수표로 인출할 것을 권하였으나 B씨는 사기범이 시키는 대로 현금인출을 고집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B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은행직원의 대처로 다행히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재난지원금을 빙자한 보이스 피싱 사례는 매우 다양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출처: 재난지원금 들먹이며 보이스피싱...농협 직원이 현금인출 급제동(hankookilbo.com)



06 보이스피싱의 예방

① 낯선 사람에게서는 금융거래정보를 절대 알려주면 안 됩니다.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과 관련하여 전화를 통해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묻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낯선 전화를 받고 불안하시면 반드시 해당 기관에 연락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 사실여부 확인시에는 사기범이 불러주는 전화번호나 인터넷주소는 조작된 정보일 수 있으니, 반드시 114 또는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한 번호나 인터넷주소를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가짜 앱 등을 설치하여 확인전화를 가로채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니, 모르는 앱 등을 설치하였다면 다른 전화기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면 100% 보이스피싱 사기입니다.

세금, 보험료 등을 환급해 준다거나 계좌 안전조치를 취해 주겠다고 해서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면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 금융감독원, 은행 등 어느 기관에서도 현금지급기 등을 이용하여 입금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③ 자녀 납치 보이스피싱에 미리 대비합니다.

평소 자녀의 친구, 선생님, 인척 등의 연락처를 미리 알아두고 자녀가 다쳤다가 납치되었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에는 침착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사기범의 요구대로 금융거래정보를 알려주거나 입금부터 하지 마시고, 평소 준비해 둔 지인들의 연락처를 이용하여 자녀가 안전한지부터 확인하여야 합니다.



4 개인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 사실여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동창회, 친구, 대학입학처, 거래처 등을 가장하여 전화로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등록번호, 가족이름 등 개인정보를 알고 접근하더라도 전화의 내용이 사실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대출광고는 절대 연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 문자 등을 통한 대출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광고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6 대출 실행과 관련해 금전을 요구할 때는 대출빙자 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대출업체는 수수료나 선이자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해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7 전산 조작, 청탁 등을 통해 대출관련 특혜를 제공한다고 하면 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대출 여부 및 한도는 신용점수, 연체이력, 채무내역 등을 모두 고려하여 금융회사 내부에서 여러 단계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결정됩니다. 자신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유혹하는 것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8 거래실적을 올려 신용점수를 단기간에 올려준다고 유혹하는 것은 사기입니다.

단기간에 입출금 거래를 여러 차례 한다고 해서 신용점수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유혹하는 것은 사기입니다.



9 정부지원사업을 위하여 금융회사는 문자나 전화로 대출을 권유하거나 대출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직접 대출을 받거나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10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에 전화를 하였는데 ARS 안내가 먼저 나오지 않고 사람이 직접 받는다면 다른 전화로 다시 걸어 확인해보십시오.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의 공공기관과 은행 등의 금융회사에 전화를 걸면, 먼저 ARS 안내 음성이 나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응대 직원에 대한 보호 관련 내용의 안내가 나온 후에 해당 기관의 직원이 전화를 받게 됩니다. 전화를 걸었는데 어떠한 안내 음성 없이 직접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면 핸드폰에 악성앱이 깔렸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주위의 다른 전화를 이용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11 금융회사에서는 직접 직원을 보내서 현금을 받아가지 않습니다.

정부지원 사업의 신청이나 더 나은 조건의 대출 실행을 위하여 금융회사 직원이 직접 수수료나 기존 대출금 등을 받아간다고 하면 보이스피싱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에게 직접 현금을 건네지 않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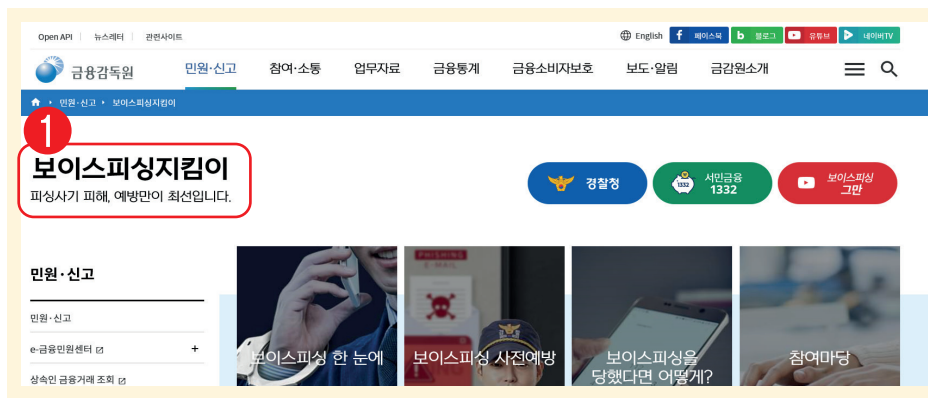


07 보이스피싱 목소리 미리 들어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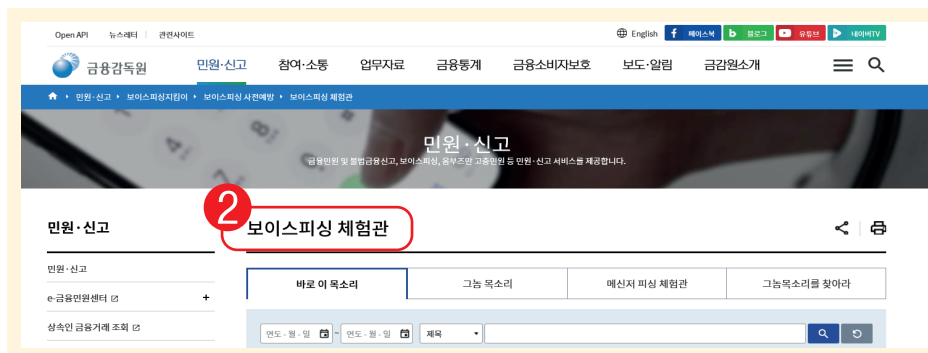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매우 치밀하여, 실제 전화를 받으면 상황을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유인하는지 한 번 들어본다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보이스피싱 체험관 이용하는 법

- 1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보이스피싱 지킴이”를 입력하여 접속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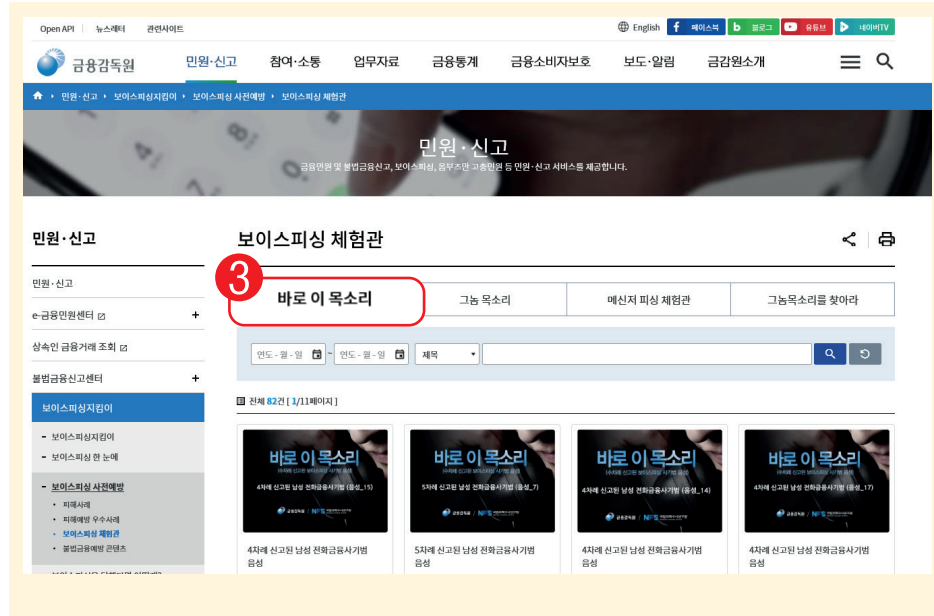


- 2 왼쪽 메뉴 중 보이스피싱 지킴이 - 보이스피싱 사전예방을 클릭한 후, 보이스피싱 체험관을 클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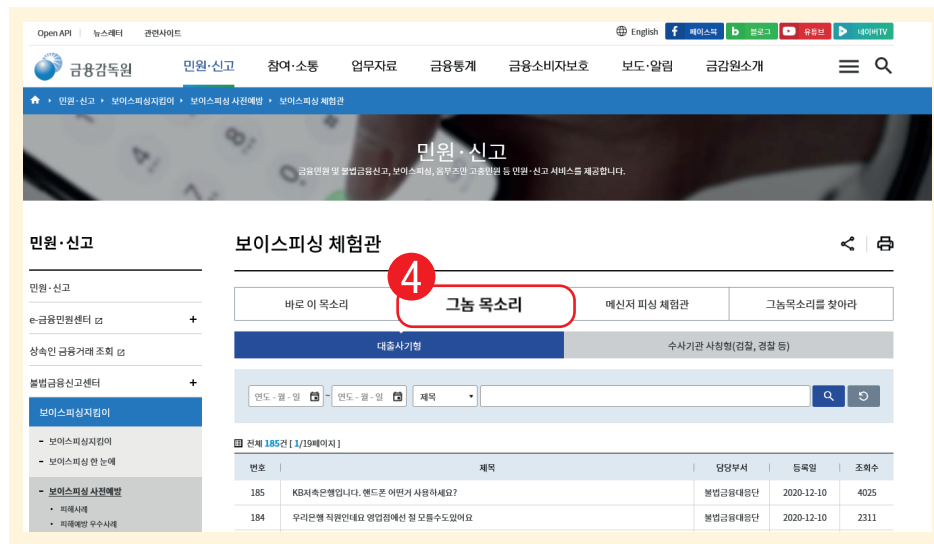




3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목소리를 녹취한 “바로 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4 보이스피싱 유형별로 더 알고 싶으면, 추가로 “그놈 목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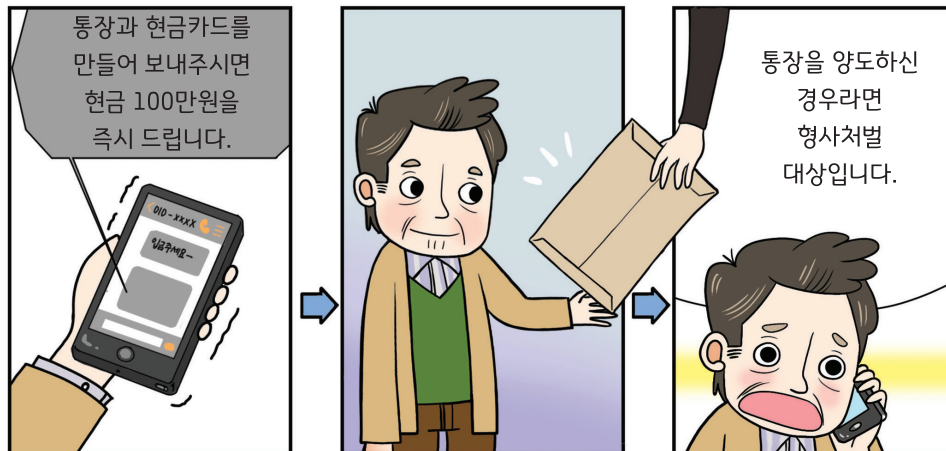
08 대포통장 빌려주어도 처벌

❖ 대포통장이란?

대포통장이란 통장의 명의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통장을 말합니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범들은 돈을 인출하기 위해 대포통장을 주로 이용하며, 이를 위해 돈을 주고 대포통장 개설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대포통장 매매는 형사처벌 대상

타인에게 통장을 양도하는 행위, 대가를 받거나 또는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통장을 빌려주거나 권유하는 행위는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통장을 넘겨주어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면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되어 최장 12년동안 대출을 받지 못한다거나 신용점수에 영향을 주는 등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으며,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명의인은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01 파밍이란?

파밍(Pharming)이란 가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 정보를 알아내어 돈을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금융사기범들은 가짜 홈페이지 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메일, 문자 등을 보내거나 원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컴퓨터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컴퓨터를 감염시킵니다. 감염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가 가짜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이를 알아낸 사기범들이 돈을 빼내어 갑니다.

파밍 절차

사기범이 피해자에게 악성코드가 포함된 이메일을 보냅니다.

악성코드가 포함된 것을 모르는 피해자가 해당 이메일을 열어봅니다.

이메일을 여는 순간 악성코드가 피해자의 컴퓨터에 심어져 감염됩니다.

피해자는 금융거래를 위해 인터넷 뱅킹에 접속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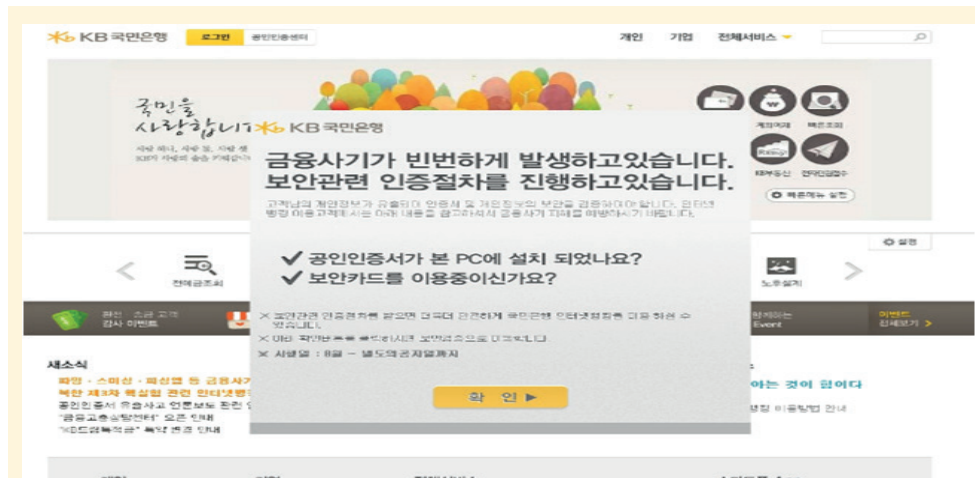
악성코드가 가짜 홈페이지로 접속하도록 만듭니다.

가짜 홈페이지는 보안카드 일련번호, 보안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하거나 특정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합니다.

사기범들은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돈을 빼갑니다.

❖ 가짜 사이트는 구별하기 어려워요

파밍은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감염시켜 가짜 사이트로 자동으로 접속되게 하고, 접속된 가짜 사이트는 실제 사이트와 매우 유사하여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가짜 금융회사 홈페이지

VS.



실제 금융회사 홈페이지



02 파밍의 예방

① 낫선 이메일, 문자, 파일은 클릭하지 않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문자, 파일 등을 클릭하면 악성코드에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여야 합니다.

② 보안카드 번호 중 2개를 초과하거나, 전부를 입력하라는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금융회사는 절대로 보안등급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안카드 번호는 절대로 2개를 초과하거나, 전부를 입력하도록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가짜 사이트를 통해 비밀번호를 빼내기 위한 것이므로 절대 입력하면 안 됩니다.

📢 보안카드번호 입력은 보안카드 중 두 개 비밀번호의 앞 두자리와 뒷 두자리를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이보다 많은 번호를 입력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금융사기입니다.

주의! 복사 또는 스캔하지 마십시오

no. 12345678

1	09 55	8	51 63	15	71 10	22	12 67	29	88 07
2	92 31	9	76 47	16	00 27	23	74 29	30	04 78
3	91 69	10	58 62	17	17 81	24	35 99	31	12 62
4	38 54	11	45 36	18	36 50	25	76 25	32	75 33
5	42 85	12	92 15	19	60 71	26	54 23	33	02 64
6	21 14	13	75 89	20	91 35	27	18 78	34	85 20
7	26 70	14	48 98	21	85 74	28	36 94	35	72 51

이 코드표는 인디넷뱅킹, 밀착뱅킹, 스마트뱅킹, 모바일뱅킹에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 2번의 앞 2자리(92), 32번의 뒷 2자리(33) 등과 같이 정상적인 금융거래시에는 2개 비밀번호를 앞 뒤로 나누어 입력하도록 합니다.



- ③ 보안카드 대신 OTP를 사용하거나 생체정보 등을 이용하면 더 안전합니다.

OTP(일회성비밀번호생성기)는 비밀번호가 그때그때 생성되어 보안성이 강화된 대체입니다.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OTP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최근에는 실물없이 모바일에서 발급받는 디지털 OTP도 있고, 얼굴, 지문, 정맥 등의 생체정보를 이용한 보안을 활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체 정보는 개별적이어서 안전하고 위조와 변조의 위험도 상대적으로 적지만 동의없이 지문을 찍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주의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OTP(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

OTP란 매번 새로운 비밀번호를 만드는 보안장치입니다. 인터넷뱅킹을 신청할 때 보안카드 대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카드형 OTP



일반 OTP

- ④ 컴퓨터, 이메일 등에 보안카드 사진, 비밀번호 등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컴퓨터, 이메일 등에 보안카드 사진, 비밀번호 등을 저장해 두면 유출우려가 있습니다.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따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01 스미싱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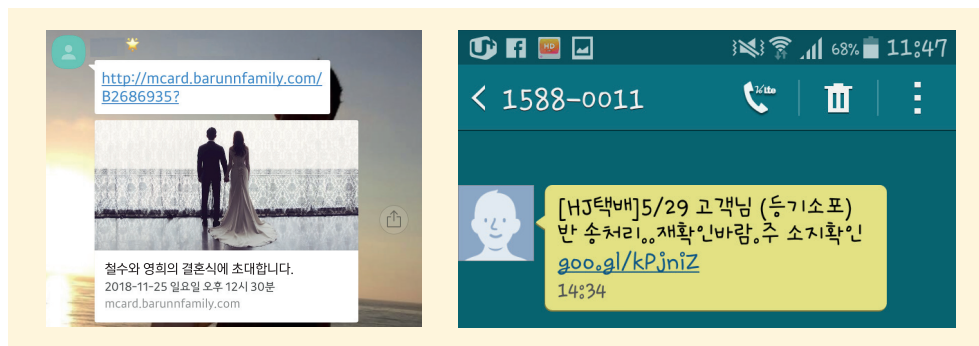
스미싱(Smishing)이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와 전자금융사기를 뜻하는 피싱(Phising)의 합성어입니다. 악성코드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전달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을 감염시켜서 소액결제 등을 통해 돈을 빼가거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금융사기입니다.

소액결제

온라인 구매, 콘텐츠(앱, 게임 등) 등의 소액 구매비용을 휴대폰에서 결제하고 다음 달 통신요금에 청구되는 결제 방식

❖ 스미싱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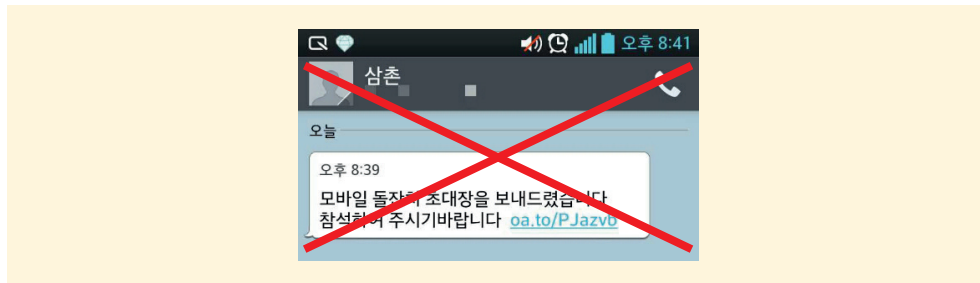
돌잔치초대장, 청첩장, 택배안내 등 별 생각없이 읽어볼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합니다.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사회적 이슈가 있는 내용으로 발송하여 링크를 터치하도록 유도합니다.



02 스미싱의 예방

① 모르는 문자메시지는 그냥 지웁니다.

모르는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 링크는 터치하지 않습니다. 만약, 지인에게서 온 문자라도 인터넷주소가 링크되어 있다면 먼저 전화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소액결제 차단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소액결제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미리 차단해둡니다. 자신의 휴대폰 콜센터(휴대폰에서 114를 눌러 통화신청)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01 메신저피싱이란?

스마트폰이 필수적으로 자리잡음에 따라 카카오톡, 밴드 등 메신저의 활용도 보편화되었습니다. 메신저피싱은 가족이나 친구 등을 사칭하며 급전 명목으로 송금을 요청하여 가로채는 금융사기 형태입니다. 주로 소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를 당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 메신저피싱 피해 사례 (1)

A씨는 딸을 사칭한 사기범에게 신분증 사진, OO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보냈습니다. 사기범은 A씨의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A씨 명의로 XX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여 오픈뱅킹을 신청한 후, A씨 명의의 OO은행 계좌와 YYY금고 계좌를 연결하였습니다. 이후 OO은행 계좌의 잔액 980만원과 YYY 금고 계좌의 잔액을 사기범이 개설한 XX은행으로 이체하였고 다시 다른 사람의 계좌로 이체하여 가로챘습니다.

사기범들은 또한 A씨의 명의로 △△△캐피탈에서 2,400만원을 비대면으로 대출 받아 이들이 개설한 XX 은행에 송금한 후 다시 다른 사기범의 계좌로 이체하여 가로챘습니다.

피해자 A씨는 이러한 사실을 이들이 지난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오픈뱅킹(공동결제시스템)

조회나 이체 등 은행의 핵심 금융기능을 표준화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개방하는 공동결제시스템을 말함. 즉, 오픈뱅킹을 통해 소비자는 은행별로 일일이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한 개 은행 앱에서 자신의 모든 은행계좌를 등록해서 결제, 송금, 이체 업무를 할 수 있음



❖ 메신저피싱 피해 사례 (2)

2021년 3월 O씨는 모르는 번호로 “엄마 내 폰이 고장나서 수리 맡겼어 πππ 이 번호로 카톡 추가하고 톡 해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딸이라고 착각한 O씨는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였고 피해자는 “나 환불 받을 것이 있는데, 휴대폰이 고장나서 환불을 못 받고 있으니,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환불을 받기 위한 것이라며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하였고 이런 방식으로 피해자 O씨의 휴대폰에 원격조종앱을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사기범들은 O씨의 명의로 ○○카드(2천5백만원), ◇◇카드(3천만원), □□은행(5백만원)에 대출을 신청한 후 피해자의 □□은행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받았습니다. 이후 이 금액은 모두 다른 사람의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또한 사기범들은 피해자의 다른 금융기관 계좌 잔액을 타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가로챘습니다.



02 메신저피싱의 예방

1 직접 전화통화를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 등을 사칭하며 급전 등이 필요하다며 메신저로 연락한다면, 직접 통화를 해서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전화는 안 되고 메신저만 된다고 둘러대더라도 반드시 목소리를 확인 후 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주기적으로 메신저 비밀번호를 바꾸고 바이러스 검사도 실시합니다.

휴대폰이 해킹을 당해 ID가 도용당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메신저 비밀번호를 바꿉니다.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악성코드를 설치하여 개인정보를 빼낼 수도 있으니(스미싱) 바이러스 검사도 주기적으로 실시합니다.

3 어떠한 경우에도 신분증,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제공해서는 안되며, 절대로 문자에 삽입되어 있는 URL을 터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휴대폰에 신분증(촬영본) 및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경우 원격조종앱에 의해 이러한 정보가 모두 노출될 수 있으니 휴대폰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Chapter
6

금융사기에 대한 대처

01 금융사기를 당했다면?

금융사기의 예방 수칙을 지켰다고 하더라도 금융사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사기범에 속아 돈을 송금하였다 하더라도 재빨리 대응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1 금융회사(또는 경찰)에 지급정지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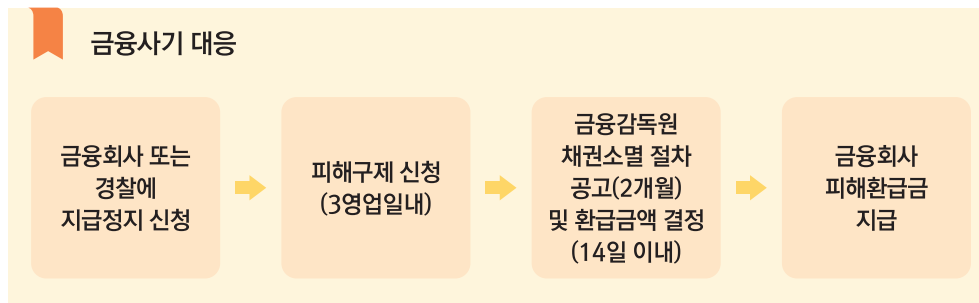
사기범이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즉시 송금한 은행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이나 경찰(☎112)에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2 피해구제 신청(정식 서면접수)

3영업일 이내 피해구제 신청서를 지급정지를 신청한 은행에 제출합니다.

3 피해구제절차 진행 및 피해금 환급

피해금 환급제도에 따라 지급이 정지된 계좌에 대해 2개월간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 공고 절차 후 지급정지 계좌에 대해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으면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피해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어야 환급이 가능하며, 그 계좌에 입금한 또 다른 피해자들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들과 남은 잔액을 나누어서 환급받게 됩니다.





02 금융사기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해야 할 일

① 휴대전화를 초기화 하거나 악성앱을 삭제합니다.

나도 모르게 원격조종되는 악성 앱이 설치되었을 수도 있으므로 금융사기를 당했다면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모르는 앱을 삭제해야 합니다.

②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면 노출사실을 등록합니다.

금융감독원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에 접속하여 본인 확인을 한 후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을 등록하여 타인이 계좌를 개설하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③ 명의가 도용되었을 경우 내 이름으로 계좌가 개설되었는지, 휴대폰이 개설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에 접속하여 “내 계좌 한눈에” 메뉴를 클릭하여 본인 명의로 개설된 예금, 대출 계좌의 상세 내역을 확인합니다. 만일 명의도용으로 인하여 계좌가 개설되었다면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지급 정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서비스(www.msafes.or.kr)에 접속하여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메뉴를 클릭하여 본인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개설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본인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가 존재한다면 해당 이동통신사에 명의도용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입제한 서비스’ 메뉴에서 본인명의로 휴대전화 신규 개설 차단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 10계명 |

금융감독원에서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10계명을 만들어 발표했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 1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를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 의심
- 2 전화·문자로 대출을 권유받는 경우 무대응 또는 금융회사 여부 확인
- 3 대출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 요구시 보이스피싱 의심
- 4 저금리 대출을 위한 고금리 대출 권유는 100% 보이스피싱
- 5 낯치·협박 전화를 받는 경우 자녀 안전부터 확인
- 6 채용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시 보이스피싱 의심
- 7 가족 등을 사칭하며 금전 요구시 먼저 본인 확인
- 8 출처 불명 파일·이메일·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
- 9 금융감독원 팝업창이 뜨고 금융거래정보 입력 요구시 100% 보이스피싱
- 10 보이스피싱 피해발생시 즉시 신고 후 피해금 환급 신청





01 유사수신이란?

법률에 따라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과 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은행과 같은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므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으며 예금자보호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투자대상과 사업종류에 상관없이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유사수신의 특징

① 일반 금융상품에 비해 터무니없이 좋은 조건을 제시합니다.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배당금 등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하는 등 터무니없이 좋은 조건을 제시합니다.

② 적법한 업체인 것처럼 인식하기 쉬운 이름을 사용합니다.

적법한 업체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공제회, △△협동조합, □□자산관리, ◇◇금융 등 제도권 금융회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합니다. 언론 등을 통해 소개된 고수익 사례나 가상화폐, 클라우드 펀딩 등 새로운 투자기법으로 포장하여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대박금융입니다.
저희 최첨단 자산운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월 5%를 보장합니다.





02 유사수신의 예방

고령층의 경우 퇴직금, 노후생활비 등의 목돈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유사수신 업체들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유사수신 업체의 꾀임에 빠질 수 있으니, 다음의 유의사항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①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합니다.

유사수신업체는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합법적인 금융회사인 것처럼 가장합니다. 투자권유를 받는 경우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 제도권 금융회사 확인은 “03.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하기(p.45)”를 참고하세요.

②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면 일단 의심합니다.

요즘같은 저금리 시대에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면 투자 권유한다면 일단 의심을 해야 합니다. 제도권 금융회사는 확정적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면 예금자보호대상 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없습니다. 비상식적인 고수익 보장 약속에 현혹되면 안됩니다.

③ 투자하기 전에 문의합니다.

상식 밖의 고수익은 불가능함에도 사기범들은 온갖 감언이설로 투자를 권유합니다.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문의합니다.

④ 피해시에는 즉시 신고합니다.

유사수신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에 제보합니다.



03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하기

유사수진의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투자대상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파인(fine.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파인에 접속한 후, 우측 하단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를 선택합니다.



- ② 검색하고자 하는 업체의 이름 전부, 또는 일부를 입력 후 “검색”을 선택해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합니다.

제도권금융회사조회

자료검색 | 업종선택 **2** 산업은행 검색

금융기관명의 한글 자음 또는 알파벳을 입력해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a-z

전체 1건, 현재 페이지 1/1

번호	금융기관명	홈페이지	전화번호
1	한국산업은행	http://www.kdb.co.kr	02-787-4000

- ③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면 아래의 검색결과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도권금융회사조회

자료검색 | 업종선택 **3** 초대박캐피탈 검색

금융기관명의 한글 자음 또는 알파벳을 입력해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a-z

전체 0건, 현재 페이지 1/0

번호	금융기관명	홈페이지	전화번호
게시물이 없습니다			



04 유사수신 사례

유사수신은 FX마진거래, 가상화폐, 클라우드 펀딩, 비상장주식투자 등 당시 유행하는 상품투자 등을 가장하여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주식투자 자문을 빙자한 사기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커피농장 투자

H사는 자신들이 제주에 커피농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1구좌(600만원)를 5년간만 투자하면 농장부지 소유권을 등기 이전해주고 투자금에 대해 매년 15%(90만원) 수익금을 지급한다며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

② 협동조합 가장

○○협동조합은 로또 분석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업체의 계열사로 로또복권 1등 예측번호 10개를 매주 송출해주어 1~3등의 당첨자가 다수 나왔다고 홍보하면서, 투자금을 내고 조합원이 되면 “연금처럼 매월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며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

③ 해외 계열회사 투자 권유

△△△FX는 특허 받은 스마트필름 제조업, 미국령 사이판리조트 건설업, 농산물 소매업, 태양광 개발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12개의 계열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큰 수익을 올리는 계열회사에 투자하면 36개월 동안 매월 10%의 확정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

④ 비트코인과 유사한 가상화폐를 사칭

B업체는 독일에 있는 신개념 글로벌 재테크회사라며 금생산, 제련, 디지털 화폐 발행·유통 등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다며, 투자시 6개월에 400%의 확



정수익을 지급하고 환불 요청시 언제든지 돌려주는 조건으로 투자자를 모집

5 주식시장 상장 후 고수익을 미끼로 유인

(주) H사는 세계 최초의 자동충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주식투자에 어두운 고령층, 주부 등을 대상으로 “자사주식을 매입하여 보유하면 1년 이내에 기업이 공개되어 100배 이상의 돈을 벌 수 있고 투자원금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자금을 모집하였지만 나누어준 것은 주식이 아니라 임의로 작성한 주식교환증이었음

6 합법적인 금융업이라고 속이는 유사수신

H사는 재무설계전문가, 금융투자전문가, 자산관리전문가를 자칭하며, 뉴질랜드 및 호주의 FX마진거래와 함께 기술산업에 투자한다고 주장하며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

7 예·적금 상품과 같이 원금과 확정이율을 보장한다며 유인

A업체 L씨는 150억원의 자산가라며 향후 상호저축은행을 설립하는데 자신에게 투자하고 회원이 되면 매주 3%씩 지급하여 120%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상호저축은행의 허가를 받아 영업이 개시되면 더 높은 수익을 준다고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자금을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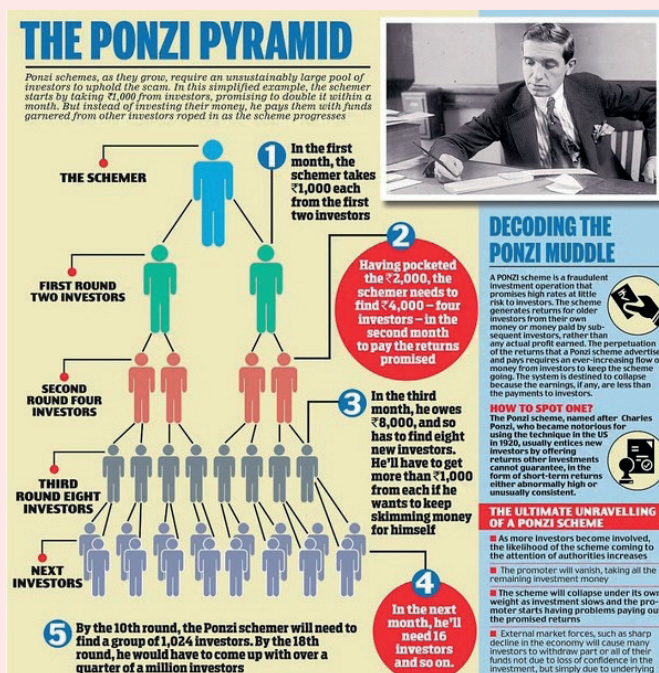
8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 업체를 사용하는 경우 주의

유사투자자문업체는 1:1로 투자자문을 할 수 없고 “OO 투자자문”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업체가 적절한 업체인지를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의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업체가 약속하는 수익률은 믿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원권 등 수수료 계산 방식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환불을 받기 어렵거나 매우 적은 금액만을 환불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 쉬어가기 | 유사수신의 역사 - 폰지사기

역사적으로 유명한 미국에서 발생한 대표적 다단계금융사기입니다. 찰스 폰지는 1919년에 국제우표반신권(만국우편연합 가입국 어디서든 우표로 교환하여 답신을 보낼 수 있도록 한 쿠폰)을 당시 이탈리아에서 구입하여 미국에서 팔아서 시세차익으로 돈을 벌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투자 수익률이 45일 후 원금의 50%, 90일 후 원금의 100% 수익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였고, 이러한 광고를 보고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실 처음 폰지의 사업계획은 실현가능성이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투자한 사람들에게 약속된 투자금이 지급되자, 투자자들은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기 시작하였고 점점 더 투자자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람의 투자금을 이전에 투자한 사람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인 금융사기행각은 1920년 8월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먼저 투자한 사람들에게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의 투자 금액을 나누어주는 것이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서 폰지는 결국 파산하고 사기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찰스 폰지 및 폰지사기의 구조





01 신용카드를 이용한 사기의 유형

신용카드 사기는 타인의 신용카드를 불법사용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것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투자할 수 있다고 속여서 돈을 가로채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인터넷상거래 등을 통해 실제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몇가지 카드정보 만으로도 신용카드 거래를 할 수 있고 본인 확인도 쉽지 않아 피해가 클 수 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분실을 알지 못하거나 분실 되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 피해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02 신용카드 사기 사례

❖ 신용카드로 세금을 대납하면 수수료를 준다는 사기

피해자 A씨는 지인으로부터 재테크 방법이라며 다른 사람의 세금을 납부해 주면 원금과 함께 2%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은행의 자동화기기 지방세 납부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구청에서 결제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하였습니다. A씨는 구청에서 세금이 대납되는 것을 직접 확인하고 지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A씨가 세금을 대납하면 원금과 함께 이자가 꼬박꼬박 입금되었고 A씨는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동생과 가까운 이웃에게도 소개를 하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이후부터 원금과 이자는 입금되지 않았고 대납 업체 사람들의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A씨는 본인과 가족들의 신용카드까지 동원하여 수억 원의 할부 대금이 밀려 있게 되었고 동생과 이웃도 할부금을 갚지 않아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었습니다.

출처: "일상이 파탄" 신용카드 대납 사기 피해자의 눈물, 연합뉴스 (yna.co.kr).



❖ 유사수신업체의 신용카드 사기 행각

브이엠피(VMP)라는 유사수신업체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수백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매일 일정 금액을 평생동안 연금처럼 지급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여 전국 회원 26만명으로부터 860억원을 모았습니다. 실제 이 업체는 “1회에 208만원짜리 회원권 또는 분양권을 사면 매일 15,000원이 평생 지급된다”며, 몇 개월이 지나면 투자 원금이 회수될 뿐 아니라 평생 수익을 누릴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현혹하였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매일 받는 금액을 늘리기 위해 회원권을 여러장 구매하기도 하였고, 다른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수당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VMP의 대표와 일부 관계자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구매한 회원권 또는 분양권 거래를 취소해달라며 신용카드 회사에 요청하였으나 이 거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를 위한 거래가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영리적 거래이기 때문에 계약의 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출처: “사기 당했으니 카드 할부 취소해달라”... 5060 주부 울린 신종 다단계 - 조선비즈 (chosun.com)





03 신용카드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현금이 점차 없어지는 사회에서 신용카드는 반드시 필요한 거래 수단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아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신용카드 수령 즉시 서명을 하고 서명하였다는 증빙을 보관합니다.

신용카드에 자신의 서명이 되어 있다면 소비자는 신용카드를 분실한 이후 60일 이전까지 발생한 부정 사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즉, 분실을 알고 바로 신고하였고 그 신용카드에 자신의 서명이 되어 있었다면 분실한 신용카드의 부정 사용은 신용카드 회사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때, 신용카드에 자신이 서명하였다는 것을 증빙해야 합니다. 서명이 되어 있지 않은 카드나 서명이 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소비자가 부정 사용에 대한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습니다.

② 신용카드를 분실하였다면 분실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신용카드 회사에 신고합니다.

신용카드를 분실하였다면 분실한 사실을 안 즉시 신용카드 회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분실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신고 이전에 발생한 부정사용 금액은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③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는 잘 관리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를 분실한 이후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은 소비자가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비밀번호는 생년월일 등 남이 유추할 수 있는 번호를 사용하지 말고 카드뒷면에 적어놓지 않는 등 평소 주의깊게 관리해야 합니다.





4 신용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안됩니다.

신용카드를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사용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정사용이 될 수 있고 그에 따른 피해는 소비자가 지게 됩니다.

5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휴대폰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을 확인하고 분실을 빨리 알아채기 위하여 문자 알림 서비스를 사용하여 부당 사용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6 신용카드를 이용한 투자를 권유 받는 경우 적법성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신용카드로 분양권을 구입하도록 한다거나, 신용카드 대금을 대신 지급하여 주면 수수료를 지불하겠다는 경우, 그러한 거래가 적법한 거래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너무 좋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거래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Part 02

제2편

생애 마지막
준비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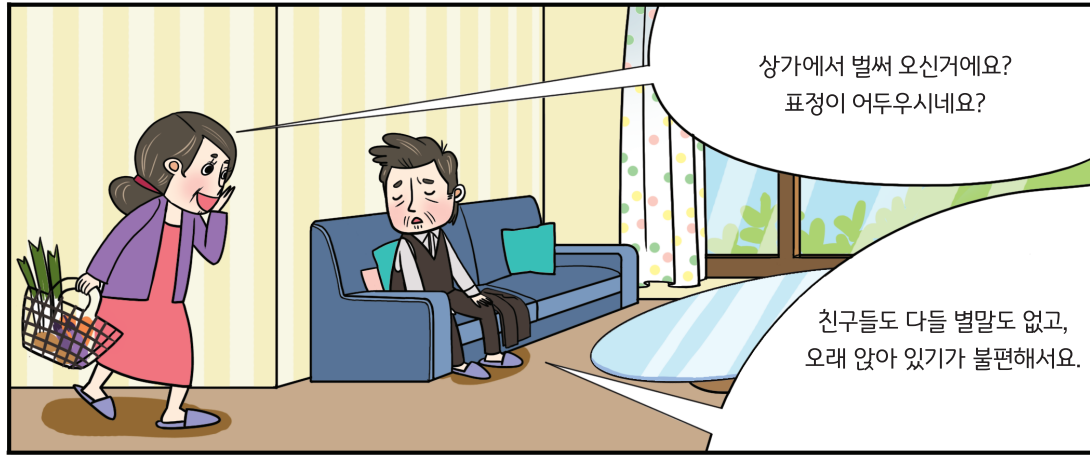
Intro

황혼기가 되면 오히려 준비를 할 것이 많아집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나의 삶과 자산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남아있는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재산을 물려줄 지 등을 가족들과 대화하며 함께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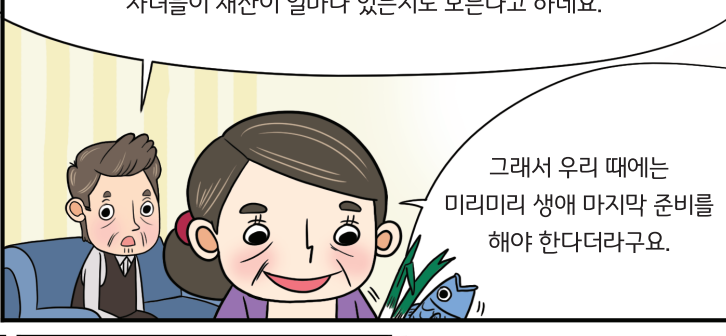
제2편 “생애 마지막 준비하기”에서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위해 필요한 재산의 정리, 장례 준비, 상속과 증여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친구가 갑자기 떠났는데 좋을리가요.

엊그제까지도 같이 어울렸는데 갑자기 그런일이 생겼네요.
그런데, 친구가 갑자기 떠나다보니 따로 재산 정리도 못했나보더라고요.
자녀들이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른다고 하네요.





Chapter

1

재산의 정리

01 자산과 부채 정리해두기

황혼기에는 신체적, 정신적 노화가 갑자기 찾아오게 됩니다.

기억력이 감퇴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게 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치매 등에 걸리게 되면 평소 자신이 원하던 바가 아닌 뜻밖의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불필요한 가족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미리 자산을 정리해 두고, 본인이 원하던 대로 상속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후에 상속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미리 도와주는 것도 자녀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02 내 금융자산 찾기 위한 파인 접속 방법

금융감독원에서는 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 기초정보를 모아 놓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사이트인 파인(fine.fss.or.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인에서는 공동인증서 및 휴대폰 인증 등 간단한 확인절차를 통하여 자신의 금융계좌, 보험가입정보, 대출정보 등을 한 번에 찾아볼 수 있어 자산을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공동인증서

국가가 인정한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전자문서입니다. 공동인증서 발급방법은 “3권 바로 지금! 꼭 알아야 할 디지털금융의 05. 인증서 발급받기(p.20)”를 참고 하세요.

❖ 파인 접속방법

인터넷 주소창에 fine.fss.or.kr를 직접 입력하거나,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파인’으로 검색하면 쉽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모습



‘다음’ 검색 모습



03 내 금융계좌 찾아보기

파인(fine.fss.or.kr)에서는 본인 명의의 은행, 저축은행,우체국, 상호금융회사의 계좌와 보험, 카드, 대출에 관한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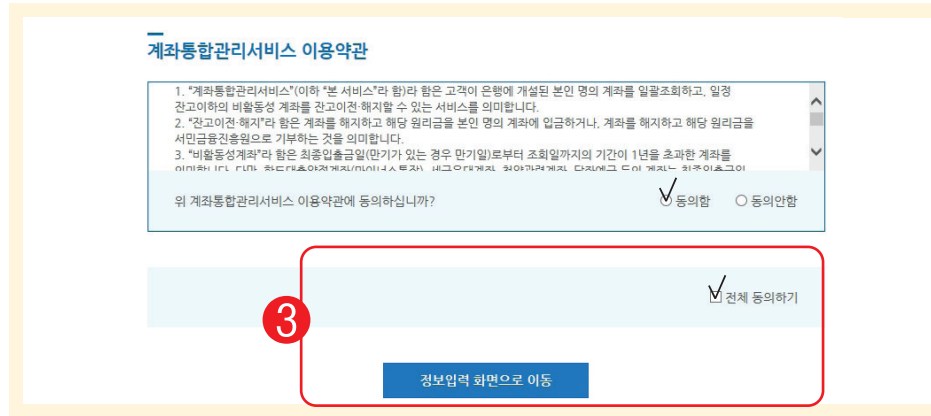
① 파인에서 “내 계좌 한눈에”를 선택합니다.



② “내 계좌 한눈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로 자동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는 은행, 상호저축은행 등 2금융권,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내 계좌 한눈에”와 보험가입 정보와 대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정보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보유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내 카드 한눈에” 등 다양한 메뉴가 있습니다. 은행 계좌 자산을 확인해 보려면 먼저 “내 계좌 한눈에”를 클릭하여 “은행권”을 선택합니다.



- ③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약관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 등 “전체 동의하기”에 동의하고, “정보입력 화면으로 이동”을 선택합니다.



- ④ 공동인증서 로그인에서 주민번호 입력,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선택하고 화면의 안내에 따라 이동합니다.



- 5 전체 은행의 “은행별 계좌내역”이 표로 정리되어 나타납니다. 상세조회를 선택하면, 각 은행별로 “계좌 상세내역”과 “잔액”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좌통합관리

계좌통합조회

- 은행권
- 저축은행/상호금융/우체국

잔고이전·해지

해지결과조회

고객센터
1577-5500

조회서비스
매일 09:00 ~ 22:00

- 계좌조회서비스
- 금융정보조회서비스
- 자동이체조회서비스
- 동위내역 확인서비스

해지 및 변경서비스
영업일 09:00~22:00

- 잔고이전·해지서비스
- 자동이체해지/변경서비스

홈 > 계좌통합관리 > 계좌통합조회

계좌통합조회

STEP.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STEP.2
로그인

STEP.3
계좌통합조회

STEP.4
잔고이전·해지

은행별 계좌내역 (총 3개은행)

(조회기준일시 : 2018.10.23, 17:07:40) 5 상세조회

은행명	구분	수시입출금식	정기 예,적금	신약	ISA·펀드 등	외화	합계	상세조회
은행	비활동성계좌	-	-	-	-	-	1건	조회
	활동성계좌	1건	-	-	-	-	1건	조회
은행	비활동성계좌	-	-	-	-	-	3건	조회
	활동성계좌	1건	2건	-	-	-	3건	조회
은행	비활동성계좌	-	-	-	-	-	1건	조회
	활동성계좌	1건	-	-	-	-	1건	조회

인쇄하기 로그아웃

↓

계좌통합관리

계좌통합조회

- 은행권
- 저축은행/상호금융/우체국

잔고이전·해지

해지결과조회

고객센터
1577-5500

조회서비스
매일 09:00 ~ 22:00

- 계좌조회서비스
- 금융정보조회서비스
- 자동이체조회서비스
- 동위내역 확인서비스

해지 및 변경서비스
영업일 09:00~22:00

- 잔고이전·해지서비스
- 자동이체해지/변경서비스
- 동위자료열람신청

홈 > 계좌통합관리 > 계좌통합조회

계좌통합조회

STEP.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STEP.2
로그인

STEP.3
계좌통합조회

STEP.4
잔고이전·해지

계좌 상세내역

(조회기준일시 : 2018.10.23, 17:07:40)

	은행명	지정명	개설일	잔고	만기일	부기명	계좌해지
	계좌번호	상품명	최종입출금일		회차	비고	잔고이전
1	은행	계좌예금	2015.06.03	4,761.133	-	-	신청 (활동성계좌)
			2018.10.15		-	-	
2	은행	마이홈플러스 주택청...	2015.06.03	-	-	-	대상아님 (활동성계좌)
			-		-	-	
3	은행	주거래 드림(...	2018.05.02	-	2019.05.02	-	대상아님 (활동성계좌)
			-		-	-	
합계				4,761.133			

인쇄하기 목록으로 로그아웃

62 제2권 | 금융사기 예방과 노후자산 정리

가이드북2권(2021)최종(6교).indd 62

2022-03-23 오후 2:49:27

04 내 보험 찾아보기

파인(fine.fss.or.kr)에서는 모든 보험사의 보험가입내역과 보험금 확정지급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1 파인에서 “내보험 찾아줌”을 선택합니다.



- 2 “내보험 찾아줌(cont.insure.or.kr)”으로 이동하면, “숨은보험금 조회하기”를 선택합니다.





- 3 “이름, 휴대폰번호(본인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수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인증절차를 진행합니다.

조회신청
보험가입 내역과 숨은보험금 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STEP01 **본인인증** STEP02 정보동의 STEP03 결과확인

본인인증

- 인터넷 신청 및 조회는 24시간, 실시간으로 가능합니다.
- 조회결과는 조회신청일로부터 1개월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름: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 -

이메일: @

내보형 찾아줌 (ZOOM)

공통인증서 인증 > IPIN 인증 > 휴대폰 인증 >

인증장이 안뜨는 경우

- 4 고객정보활용동의란에 모두 체크한 후, “동의하기”를 선택합니다.

조회신청
보험가입 내역과 숨은보험금 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STEP01 본인인증 STEP02 **정보동의** STEP03 결과확인

고객정보활용동의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인터넷보험계약조회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모든 내용에 동의합니다.

1.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사항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보험가입, 미청구보험금 조회 관련업무 및 증빙자료 보존

동의합니다. (필수)

2.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생명보험협회가(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보험가입, 미청구보험금 조회와 관련하여 신청인 본인 및 조회대상자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를 제공받아 처리하고, 상기 고유식별정보를 생명·손해보험사와 손해보험협회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필수)

4 **동의하기** >





- 5 보험가입내역 등 조회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세부내역 등은 해당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 확인합니다.

인터넷 신청 보험내역 조회결과

기본사항

접수번호	접수일자	조회 대상자 인적사항		신청인 성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11170000569	2017-11-10	김금웅	551111-1234567	김금웅

보험가입내역 조회결과 총 45건

보험회사	구분	상품명	증권(계약) 번호	보험계약 상태	보험계약 관계	보험기간		담당점포	전화번호
						시작일	종료일		
대한생명	보험계약	에프프리엄연금보험	0000000000	유지(정상)	보험수익자	2006-04-03	2022-04-03	대한생명	02-398-6881
대한생명	보험계약	영광형스모	0000000000	유지(정상)	보험수익자	1998-08-31	2018-08-31	대한생명	02-6910-2541
대한생명	보험계약	에브리리저리	0000000000	해약	보험수익자	2006-07-11	2016-07-11	대한생명	02-398-6881
대한생명	보험계약	영광로얄저축	0000000000	유지(정상)	보험수익자	2009-05-04	2019-05-04	대한생명	02-398-6881
대한생명	보험계약	한일교육	0000000000	유지(정상)	보험수익자	1994-09-26	2000-09-26	대한생명	02-6350-3616
이화생명	보험계약	황금우익연금유니버설증신보험V12	0000000000	유지(정상)	보험계약자	2012-03-30	2999-12-31	홍남	1588-4770
이화생명	보험계약	황금우익연금유니버설증신보험V12	0000000000	유지(정상)	보험계약자	2012-03-29	2999-12-31	홍남	1588-4770
이화생명	보험계약	무) 학기사랑증신보험	0000000000	해약	보험계약자	2005-03-29	2015-12-31	홍남	1588-47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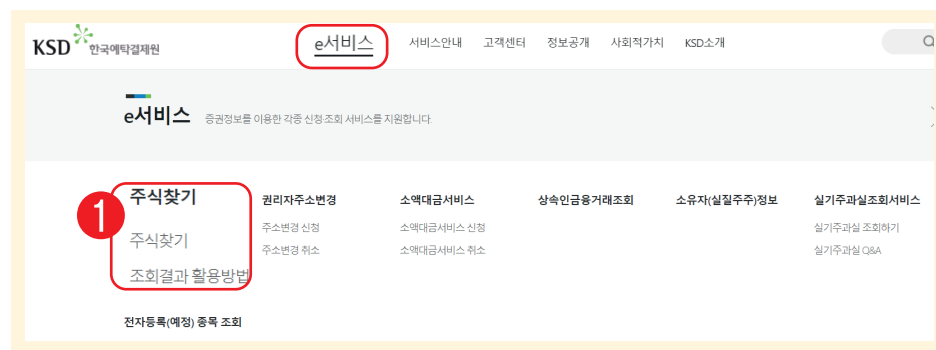


05 내 주식 찾아보기

근무하던 회사에서 지급받은 주식을 잊고 있었다거나,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주식을 지급받았으나 이사로 이를 통지받지 못하는 등 자신도 모르게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주식들은 한국예탁결제원(www.ksd.or.kr)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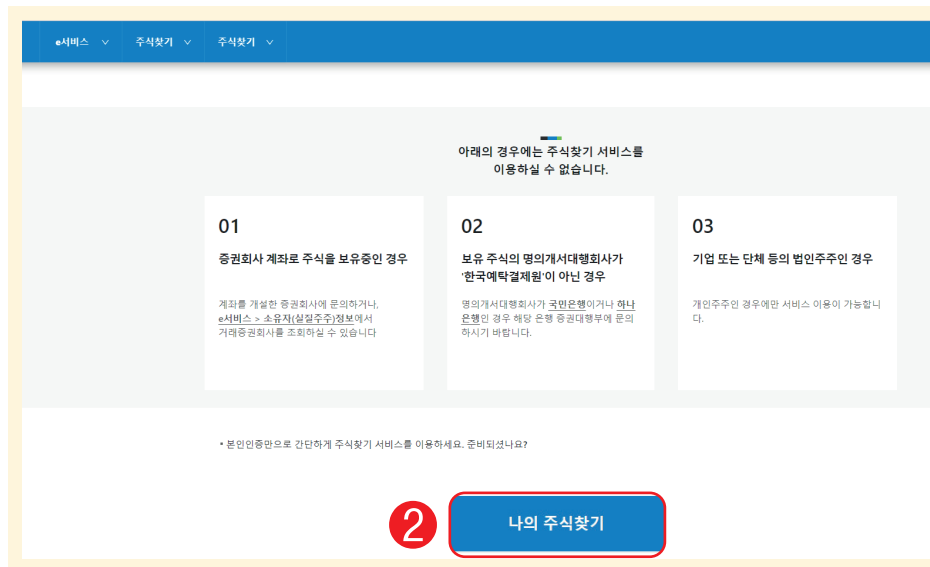
❖ 증권회사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 1 한국예탁결제원에 접속하여, e서비스를 클릭하여 “주식찾기”를 선택합니다.



- 2 ‘주식찾기’ 메뉴에서는 개인주주이면서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명의개서를 해 주었으나 개인의 증권회사 계좌에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의 주식 찾기를 클릭하고 본인인증을 한 이후 주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개인 명의의 증권회사 계좌 주식은 예탁결제원 e서비스의 소유자(실질주주정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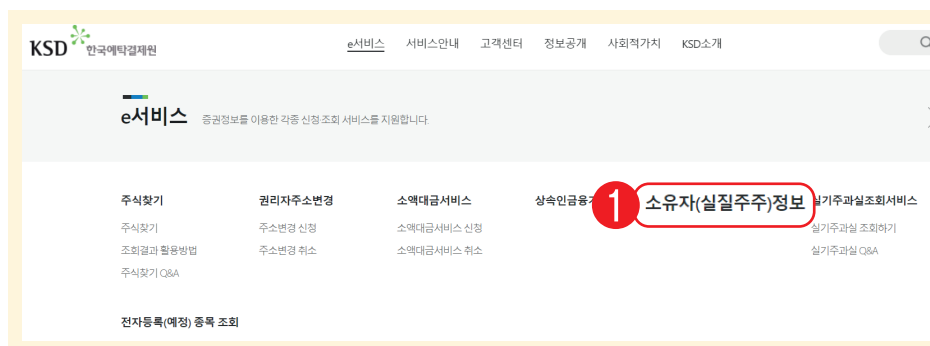


- ▶ 미수령주식이 조회되면 신분증을 준비하여 한국예탁결제원(☎ 02-3774-3000)을 방문하여 안내에 따라 처리합니다.

❖ 주식을 증권회사에 계좌개설하여 위탁한 경우

증권회사에 계좌를 만든 기억이 있다면 ‘실질주주정보’코너를 이용하여, 해당 증권사를 조회하여 주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 ① 한국예탁결제원에 접속하여, 상단의 “e서비스”를 선택합니다. 아래로 세부 메뉴가 펼쳐지면 “실질주주정보”를 선택합니다.





② 소유자정보를 클릭하여 나오는 설명을 자세히 읽은 다음 개인주주를 클릭하고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한 다음 공동인증서 혹은 휴대폰 인증을 통해 주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을 설정해야 하고 해당 내용이 불확실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 금융회사에 전화하여 문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증권회사와 보유종목이 조회되는 경우 해당 증권사에 전화하여 문의합니다.



06 내 자산을 모두 찾았다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방법으로 나의 자산을 찾아보았다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용도와 종류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용도나 목적에 따라 정리하거나 자산의 종류에 따라 정리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 ① 용도에 따라 정리하기: 자신이 원하는 용도를 생각해 보고 그에 따라 구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노후의 생활자금을 위한 자산
 - 지속적인 자산 증식을 위한 자산
 - 상속이나 증여 등 물려주기 위한 자산
 - 특별한 목적(예, 기부 등)을 위한 자산

- ② 종류에 따라 정리하기 : 자산의 성격에 따라서 구분하고 관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 현금성자산 (은행의 예적금)
 - 안전 금융자산 (보험사의 연금 혹은 금리가 확정된 자산)
 - 금융투자자산 (주식, 채권 등의 자산)
 - 부동산 자산
 - 기타 자산 (골동품, 회원권 등)

그리고 이렇게 자산의 용도와 종류에 따라 구분한 자산 목록과 금액을 믿을 수 있는 전문가나 자녀 등에게 알려, 내가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사후에 나의 뜻에 따라 자산이 처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07 노후자산관리를 위한 임의후견인제도

❖ 임의후견인이란?

임의후견인은 미리 본인 스스로가 원하는 사람과 계약을 통해 후견인을 지정해두는 제도입니다.



❖ 임의후견인제도의 절차

① 본인이 원하는 사람과 후견계약을 체결합니다.

내가 필요한 사항을 후견인에게 위탁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자산관리나 기타 의사결정에 대한 전부를 위탁할 수도 있고 일부를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② 작성한 계약서는 공증을 받고 등기를 합니다.

계약서는 공증을 받아야 하며, 법원에 등기를 해야 합니다.

③ 법원의 결정에 따라 후견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후견계약은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는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임의후견인제도의 특징

임의후견인제도는 온전한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치매 등이 발병한 후 타인이 후견인을 신청하여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후견인이 지정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증, 등기, '임의후견감독인' 등 안전장치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Chapter
2

삶의 정리

01 웰다잉

❖ 웰다잉이란?

웰다잉이란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고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생의 마감 자체를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는 과정을 미리 준비하고 존엄성을 지킬 수 있다는 면에서 웰다잉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2020년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노인실태보고서에 의하면 65세 이상 응답자의 90%가 임종 전후의 상황을 스스로 정리한 후 임종을 맞는 것이 ‘중요’ 또는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즉, 노인의 대부분은 삶을 마무리하는 방법을 결정하고 좋은 죽음을 맞는 것을 의미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생애 말기 좋은 죽음에 대한 중요성 인지 정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중요	중요	그저 그렇다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계 ¹⁾ (명)
1) 임종 전후의 상황을 스스로 정리한 후 임종을 맞이하는 것	38.8	50.2	9.8	1.1	0.1	100.0 (9,930)
2) 신체적, 정신적 고통없이 임종을 맞이하는 것	56.4	34.1	8.3	1.0	0.1	100.0 (9,930)
3) 임종 시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이 함께 하는 것	39.4	47.5	11.0	1.9	0.2	100.0 (9,930)
4)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	45.3	45.3	8.8	0.5	0.0	100.0 (9,930)

1) 본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출처: 이윤경 외 (2021).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보고서. 보건복지부, 보건사회연구원 (p. 615)



❖ 웰다잉과 존엄사

웰다잉은 존엄사와 연관되어 얘기되기도 합니다. 존엄사는 소생 불가능한 생명을 연장시키는 치료를 시작하지 않거나 중단함으로써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시키거나 약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안락사와는 다릅니다.

❖ 연명치료 생각해보기

‘연명치료’는 의식불명 상태이거나 회복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인공적으로 사망시점을 조금 더 연장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응답자 중 85.6%가 연명치료를 반대하였으며 특히, 46%의 노인은 연명치료를 매우 반대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 연명의료 결정제도

연명치료, 존엄사 등의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2020년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 중단 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이 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자신의 뜻을 남겨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이 서류를 작성하려면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https://lst.go.kr/>) 홈페이지를 방문하여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메뉴를 클릭하여 작성 가능기관을 선택하여 거주지를 입력하고 본인과 가까운 지정 기관을 방문하면 됩니다.



❖ 연명의료 계획서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연명의료에 관한 자신의 의사를 연명의료 계획서로 남겨 놓을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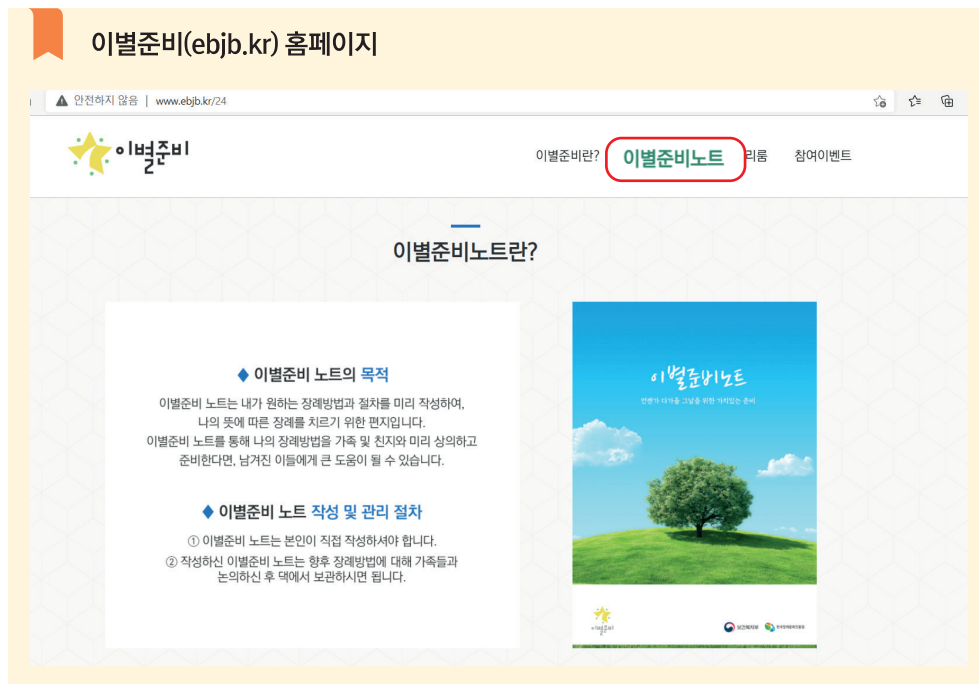


02 장례방법 정해두기

❖ 장례절차를 정해두는 것이 좋을까?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례절차를 미리 정해둔다면 유가족에게 의사결정의 부담을 주지 않고 본인의 뜻에 따라 사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한국장례문화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이별준비(ebjb.kr)에서는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원하는 장례방법과 절차를 미리 작성하고 가족과 상의할 수 있는 ‘이별준비노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하거나 사전장례의향서를 작성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장사(장례)시설 찾아보기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사(장례)문화 및 시설 등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정책 등 홍보를 위해 ‘장사정보시스템 e하늘(www.15774129.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장사정보시스템에서는 장례, 화장, 자연장, 봉안, 매장 등에 대한 장사시설 안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장사(장례)정보 서비스 이용하기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 ‘e하늘(www.15774129.go.kr)’ 홈페이지에서 장사정보서비스를 클릭하면 주변의 장사시설을 찾을 수 있고 각 시설에 대한 이용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장사정보시스템에서 장사정보서비스를 클릭하고 왼쪽의 지도에 주거지를 표시하거나 시설검색란에 주소지를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하면 주변의 장례식장, 화장시설, 자연장지, 봉안시설, 묘지 등의 장사시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장사정보시스템 e하늘(www.15774129.go.kr) 홈페이지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page of the 'e하늘' (www.15774129.go.kr) website. The page features a search bar at the top with the text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To the right of the search bar, there is a navigation menu with items like '장사정보서비스' and '장사시설서비스(시설업무용)'. Below the search bar, there are several tabs for navigation: '장사사실', '장사시설 교육', '장사정보', 'e하늘소개', and '이용안내'.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주변장사시설 찾기' (Find nearby funeral facilities). It includes a map on the left and a list of facilities on the right. The list shows three facilities: '서울백병원장례식장' (Seoul Baek Hospital Funeral Home), '국립중앙의료원' (National Central Medical Center), and '중구추모의집' (Jung-gu Memorial Home). Each facility has a '시설정보' (Facility Information) and '가격정보' (Price Information) button. Annotations are present: '1' points to the '장사정보서비스' link, '2' points to the search filters '서울특별시' and '중구', and '3' points to the search radius '서울특별시 중구(10km)'. At the bottom, there are sections for '부고 | 감사 | 조의' (Funeral Notices | Thank you | Condolences), '장례용어' (Funeral Terms), '장사시설종사인력교육' (Funeral Facility Staff Education), and '장례지도사 자격증' (Funeral Director License).

03 상조회사

❖ 상조회사란?

상조회사는 장례절차 진행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일반적인 상조회사는 선불식 상조회사로 계약자가 장례서비스 대금을 조금씩 미리 지불하여 완납한 후 장례가 발생하면 장례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 상조회사는 금융회사(보험회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장례서비스 비용을 모두 납부해야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예금자보호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아 폐업 등의 경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 상조서비스 가입시 유의사항

- ① 상조서비스에 가입한다고 전자제품을 공짜로 주지 않습니다.

상조서비스에 가입하면 전자제품이나 안마의자 등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지만 실제로는 매월 납입금액에 전자제품 할부금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② 상조회사가 재정적으로 건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상조업체의 폐업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2013년부터 2020년 사이 폐업한 상조회사의 수는 총 200여개에 달합니다. 상조회사의 폐업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상조회사들은 공제조합에 가입하고 있지만, 공제조합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피해보상금은 불입한 금액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내상조 그대로(www.mysangjo.or.kr)'를 이용할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되어 불편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건전한 상조회사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주소 등 개인정보가 바뀐 경우 바로 통지해야 합니다.

바뀐 주소 등 개인정보 변경사항을 통지하지 않아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특히 상조회사의 폐업 정보를 받지 못해 공제조합에 대한 피해보상(납입액의 50%) 신청시기를 놓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바로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에 바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장례 현장에서 요구하는 추가금은 주의합니다.

장례를 치르는 기간 중에는 유가족이 정신이 없는 데다 고인을 위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여 업체가 계약내용과 다른 서비스를 추천하고 추가금을 요구해도 이에 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조서비스 계약 내용을 자녀들에게 사전에 알려주어 불필요한 비용 지불과 관련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04 상조서비스 피해 대처하기

상조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였거나 계약내용이 알고 있는 사항과 다른 경우, 또는 가입한 상조회사의 폐업 공지를 받은 경우 등 피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한 대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청약 철회 제도를 활용합니다.

선불식 상조서비스의 경우 상조상품은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결합되어 있는 전자제품 등에 대해서는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에 대한 의사표시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② 상조회사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내상조 찾아줘’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내상조 찾아줘(www.mysangjo.or.kr)’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상조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내상조 찾아줘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상조회사의 이름 또는 본인인증으로 가입한 상조회사에 대한 정보와 납입금 내역, 가입한 주요 서비스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계약자가 사망하여 본인인증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상조보증공제조합(☎1600-1226) 또는 한국상조공제조합(☎ 1688-0972)으로 연락하여 가입내역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③ 상조회사가 폐업한 경우 공정거래 위원회의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내상조 그대로’는 ‘내상조 찾아줘’와 동일한 홈페이지(www.mysangjo.or.kr)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가입한 상조회사가 폐업을 하였거나 등록이 취소되었다면 해당 상조회사의 선수금 보전기관(은행 또는 공제조합)에서 피해 보상금(법정 피



해보상금은 납입액의 최대 50%)을 수령하고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상조 그대로’는 이름처럼 소비자가 기존에 가입한 상조서비스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피해보상금을 받은 소비자는 홈페이지에서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를 선택하고 해당 회사에 직접 가입을 신청합니다. 이 때 본인이 수령한 피해보상금 내역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에 가입되었다면 이후 장례가 발생한 경우 기존의 상조서비스와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상조회사가 폐업했다면 공제조합의 서비스를 활용합니다.

상조회사는 폐업에 대비하여 공제조합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공제조합에서는 법이 정한 비율의 금액(최대 50%)을 보상해주거나, 기존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단, 상조공제조합의 피해보상기간은 피해보상 개시일(폐업 등 공제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상조공제조합 ‘안심서비스’(☎ www.kmaca.or.kr, ☎ 1688-0972)
- 상조보증공제조합 ‘장례이행보증제’(☎ www.ksmac.or.kr, ☎ 1600-1226)

5 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활용합니다.

계약내용과 다르게 별도의 추가요금을 요구하거나 법정 기준보다 해약 환급금을 적게 지급하는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등에는 한국소비자원의 ‘1372 소비자상담센터(☎ 1372)’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01 상속과 증여란?

❖ 상속 vs. 증여

상속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상속받는 사람(상속인)에게 상속세 납부의무가 생깁니다.

증여란 살아있는 동안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생깁니다.

❖ 상속과 증여의 준비

사람들은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노후준비가 어느 정도 충분하다면 본인의 뜻에 따라 자신이 이루어온 정신적·물질적 유산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속 등을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본인의 의지와 다르게 사용되거나 후손 간에 불필요한 다툼의 소지가 될 수도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02 유언상속

우리나라는 개인의 뜻을 존중하여 유언상속을 우선합니다. 자신의 재산이 사후에 자신의 뜻에 따라 처리되는 것을 원하는 경우 유언을 작성해야 합니다. 유언의 방식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민법에서는 총 5가지 방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 유언장 작성은 가장 쉽고 비용이 들지 않는 방법입니다. 유언자가 자필로 유언내용, 작성연월일, 주소, 성명을 쓴 후에 날인하는 방식입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위조나 변조가 쉬워 법에 의하여 형식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앞의 내용이 모두 명확하게 쓰여 있어야 합니다.

❖ 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육성으로 하여야 합니다. 유언내용과 성명, 연월일을 녹음합니다. 그런 다음 증인이 유언이 정확하다고 확인하는 말을 증인의 성명과 함께 녹음합니다. 이때 증인은 1명이 필요하며 유언의 정확함과 자신의 성명을 구술할 수 있고, 유언의 내용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공증인에 의해 작성된 유언을 말합니다. 유언자가 증인 2인과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면, 공증인이 이를 기록한 후 유언자와 증인들에게 읽어주고 유언자와 증인이 그 내용이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작성합니다.



❖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의 내용을 비밀로 하는 유언방식입니다. 유언자가 유언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엄봉날인합니다. 엄봉날인이란, 봉투를 훼손하지 않고 열 수 없도록 단단히 밀봉하고, 봉투에 날인하는 것입니다. 엄봉날인한 유언서는 2인 이상의 증인 앞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봉투의 표면에 제출연월일을 작성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을 합니다.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사망을 앞두고 다른 방식을 택할 수 없는 경우에 취하는 방식입니다.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로 하고, 증인 중 1명이 유언을 받아 적고 이를 낭독하여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합니다.



03 우리나라 상속제도의 특징

❖ 유언상속이 법정상속보다 우선됨

상속은 본인의 사망 이후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에게 이전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유언상속이 우선 적용되어 상속에 대해 개인의 뜻을 유언장 등으로 미리 정하여 두면, 우선적으로 인정됩니다. 이때 유언은 법에서 정한 방식을 따라야 하며 유효한 유언이 없는 경우 법에서 정한 방식대로 상속이 이루어지는데 이를 법정상속이라고 합니다.

❖ 유류분제도

유류분제도는 유언장에서는 상속인으로 지정하지 않았더라도 법정상속이 가능한 가족에게 일정비율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녀,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가 유류분 권리자가 될 수 있으며, 그 중 순위가 앞선 상속인은 유류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권자의 유류분 비율

배우자, 자녀	법정상속분의 1/2
부모, 형제자매	법정상속분의 1/3

❖ 법정상속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상속을 정하는 유언상속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상속의 순위, 상속의 비율 등에 따라 법정상속이 적용됩니다.



❖ 법정상속의 순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의 순위는 아래와 같으며 상속순위가 높은 순서대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상속의 순위		
제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
제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3순위	형제자매	제1,2순위가 없는 경우
제4순위	4촌이내의 방계혈족	제1,2,3순위가 없는 경우

예를 들어 1순위 가족이 있는 경우 1순위 가족이 상속인이 되고, 만약 1순위 가족이 없다면 2순위 가족이 상속인이 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자가 먼저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 상속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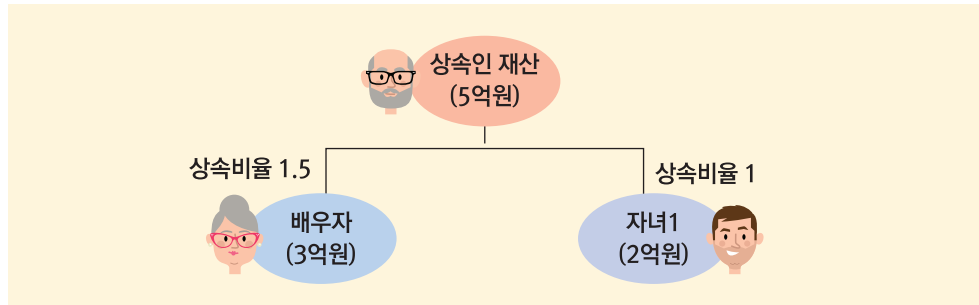
이때 배우자는 직계비속(자녀)과 직계존속(부모)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가 되며,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다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 법정상속의 비율

법정상속비율은 아들과 딸, 첫째 또는 둘째 등의 구분 없이 같은 순위의 상속인에 대해서는 동일합니다. 다만, 배우자는 50%를 가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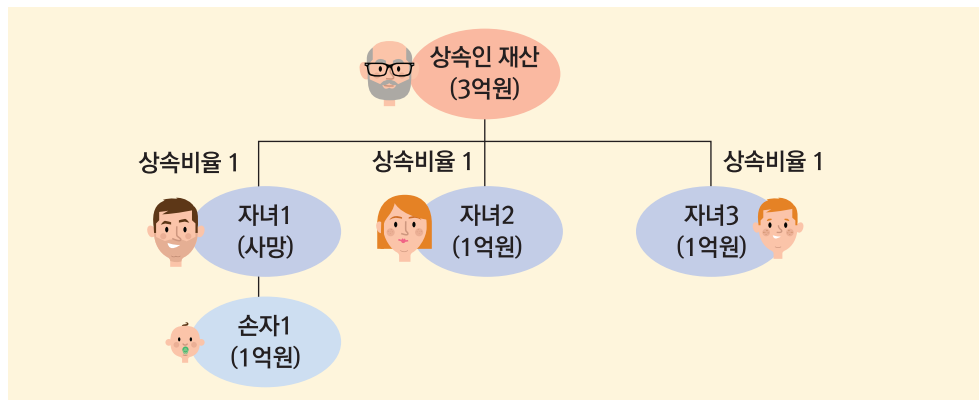
① 예 (1) :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있다면

법상 제1순위 상속인인 자녀와 같은 순위인 배우자에 대해 상속합니다. 상속비율은 배우자는 50%를 가산하여 1.5대 1이 됩니다. 만약, 5억원을 상속한다면 배우자 3억원, 자녀 2억원이 됩니다.



② 예 (2) : 생존 자녀 2명과 사망한 자녀의 손자녀 1명이 있다면

생존한 자녀와 사망한 자녀의 손자녀는 똑같이 1순위입니다. 상속비율은 모두 같습니다. 만약, 3억원을 상속한다면 생존한 자녀와 사망한 자녀의 손자녀에게 각각 1억원이 상속됩니다.



04 부채도 상속될까?

상속재산에 부채가 있는 경우, 부채도 가족에게 상속이 됩니다. 만일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 등 상속인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어야 합니다.

민법에서는 이러한 경우 상속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속포기제도와 한정승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상속포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재산과 부채를 상속받을 권리를 모두 포기하는 것입니다.

❖ 한정승인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부채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의 개시(피상속인의 사망)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 특별한정승인제도도 있습니다.





05 증여제도 이해하기

❖ 증여란?

증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살아있을 때에 재산을 주는 것입니다. 돈을 증여하는 사람(증여자)과 증여를 받는 사람(수증자)간의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증여의 성립

증여자가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수증자가 승낙함으로써 성립됩니다.

❖ 증여의 해제

증여를 하였더라도 다음과 같이 상황이 변하거나,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특정한 경우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① 증여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② 수증자가 범죄행위나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때

-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혈족에 대해 범죄행위를 한 때
-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있으나 이행하지 않은 때

▶ 위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거나 용서를 하게 되면 증여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

③ 증여자의 재산 감소 등으로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 증여의 종류

일정 재산이나 금액을 증여하는 일반적인 증여 이외에도 법적으로 여러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① 정기증여

정기증여란 정기적인 급여를 주는 방식입니다. 이때에는 증여를 하는 사람 또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증여의 효력은 없어집니다.

② 부담부증여

부동산 등 재산을 증여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하여 증여하는 것입니다.

③ 사인증여

증여계약은 생전에 하지만 증여의 효력은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입니다.

- ▶▶ 사인증여는 상속세가 부과되는 등 실제로는 상속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증여자와 수증자간의 계약이므로 증여자의 사망시 수증자는 상속인에 대해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06 상속세와 증여세

❖ 상속세와 증여세

상속은 사망으로 그 재산이 이전되는 것으로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생깁니다. 증여는 살아있는 동안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증여를 받은 사람, 즉 수증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생깁니다.

❖ 상속·증여의 준비와 세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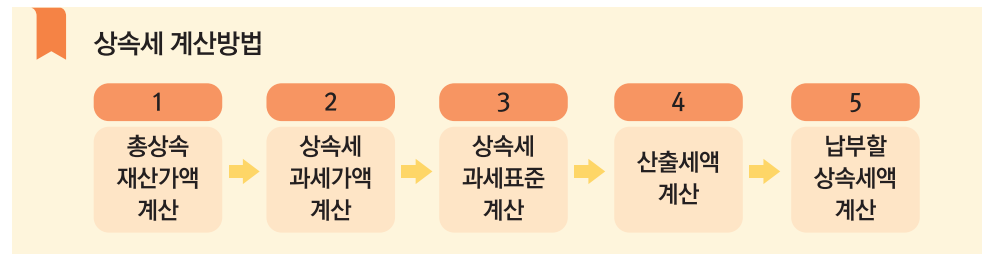
본인의 뜻에 따라 자신이 이루어온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는 상속 및 증여를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할 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내게 되는 세금, 즉 상속세와 증여세도 고려하게 됩니다. 상속 및 증여에 대해 자녀 등과 사전에 이야기할 필요가 있으며, 상속세와 증여세를 잘 이해한다면 자녀 등과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더 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 증여세에 대해 이해하면 자녀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더 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07 상속세 계산방법

개략적인 상속세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전문가 등과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재산가액 계산

상속대상이 되는 재산가액을 결정합니다. 이때 보험금, 신탁재산, 사망하기 직전에 처분한 재산 등이 있는 경우에 용도가 불분명하다면 이를 포함합니다.

② 과세가액 계산

①의 재산가액에서 과세대상이 아닌 것과 채무부담액 등을 제외합니다.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중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더합니다.

③ 과세표준 계산

②의 과세가액에서 여러 가지 금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기초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 다양한 공제항목이 있습니다. 각 공제항목별 한도와 전체 공제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 공제항목 예

- 기초공제 : 2억원을 공제합니다. 기업상속 등의 경우에는 별도 조건에 따라 200억 ~500억원을 한도로 추가로 공제합니다.
- 인적공제 : 자녀 1인당 5천만원을 공제하며,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산식에 따라 공제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 배우자공제는 상황에 따라 5억원~30억원입니다.
- 일괄공제 :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을 공제하되,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합니다.
- 동거주택공제 : 피상속인과 10년이상 동거한 주택은 10년 동안 계속 1세대 1주택이었던 경우 6억원 한도내에서 100%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4 산출세액 계산

③의 과세표준에 상속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줍니다.

상속세율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 6천만원	4억 6천만원

📢 과세표준이 7억원이라면?

10억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7억원에 30%를 곱한 후 누진공제액 6천만원을 빼줍니다.
즉, 7억원×30% = 2억 1천만원에서 누진공제액 6천만원을 뺀 1억 5천만원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5 납부할 상속세액 계산

④의 산출세액에서 만약 직계비속(아들·딸) 대신 손자, 손녀 등에게 직접 상속(세대생략 할증과세)하는 경우 할증(30%,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상속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0%)하거나, 이미 낸 증여세액이 있는 경우 공제해주는 등 조정을 한 후 최종 납부할 세액을 결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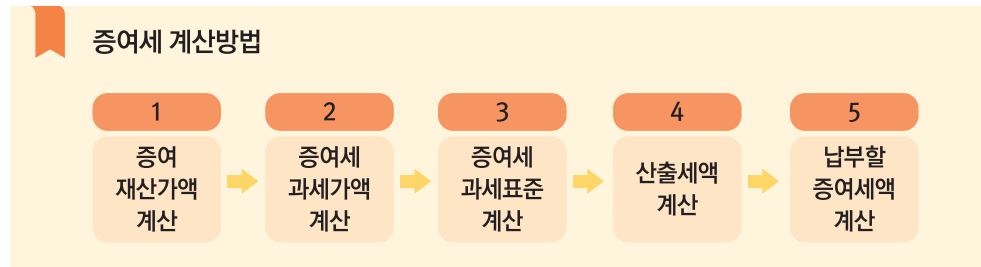
- ▶ 만약,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 그 자녀가 대신하여 상속을 받는다면(대습상속) 할증과세하지 않습니다.





08 증여세 계산방법

개략적인 증여세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전문가 등과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재산가액 계산

국내외 모든 재산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재산가액을 평가합니다.

② 과세가액 계산

①의 재산가액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등이나 채무부담액은 제외합니다. 만약,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더해야 합니다.

③ 과세표준 계산

②의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등 공제를 적용합니다. 10년간 누적한도를 적용하여, 각 수증자에게 다음과 같이 한도를 적용합니다.

-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 6억원
- 직계비속이나 존속에게 증여한 경우 :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④ 산출세액 계산

③의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줍니다. 증여세율 및 누진공제액은 상속세율과 같습니다.

증여세율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 6천만원	4억 6천만원

⑤ 납부할 증여세액 계산

④의 산출세액에서 만약 직계비속(아들·딸) 대신 손자, 손녀 등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에는 할증(30%,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0%)하거나, 이미 낸 증여세액이 있는 경우 공제해주는 등 조정을 한 후 최종 납부할 세액을 결정합니다.

▶ 만약,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라면 할증과세하지 않습니다.



09 상속 및 증여세 관련 정보

- ①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현재의 시가로 합니다.

시گران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기간의 거래가 있는 경우 그 확인되는 금액을 시가로 합니다. 다만 부동산의 경우에는 거래가 없는 경우도 있어 공시지가, 주택가격 등 공적인 정보를 보충적으로 사용합니다.

- ② 일정 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모두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 ③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통하여 사망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로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위하여 한번에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상속인이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일부는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④ 상속세와 증여세는 10년 합산되므로 상속과 증여는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10년간 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계산 시 합산이 되기 때문에 재산을 자녀에게 이전할 계획이 있는 경우는 장기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금융회사 콜센터 현황

01 은행

구분	은행이름	콜센터
일반은행	KB국민은행	1588-9999
	우리은행	1599-5000, 1588-5000
	신한은행	1577-8000
	KEB하나은행	1599-1111
	스탠다드차타드은행	1588-1599
	한국씨티은행	1588-7000
특수은행	KDB산업은행	1588-1500
	IBK기업은행	1566-2566
	NH농협은행	1661-3000
	SH수협은행	1588-1515
지방은행	DGB대구은행	1566-5050
	부산은행	1588-6200
	광주은행	1588-3388
	제주은행	1588-0079
	전북은행	1588-4477
	경남은행	1588-8585, 1600-8585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	1599-3333
	케이뱅크	1522-1000
	토스뱅크	1661-7654

참고

금융회사 콜센터 현황





02 증권사

이름	콜센터
상상인증권	1566-0900
교보증권	1544-0900
대신증권	1588-4488, 1544-2000
리딩투자증권	1544-7004
메리츠증권	1588-3400
미래에셋증권	1588-6800
카카오페이증권	1600-8515
부국증권	1588-7744
삼성증권	1588-2323
신영증권	1588-8588
신한금융투자	1588-0365
유안타증권	1588-2600
유진투자증권	1588-6300
유화증권	02-566-5522
이베스트투자증권	1588-2428
케이프투자증권	1544-7600
키움증권	1544-9000
DS투자증권	02-709-2300
하나금융투자증권	1588-3111
하이투자증권	1588-7171





참고

금융회사 콜센터 현황

이름	콜센터
한국투자증권	1544-5000
한양증권	1588-2145
한화투자증권	080-851-8282
현대차증권	1588-6655
흥국증권	02-6742-3600
BNK투자증권	1577-2601
DB금융투자	1588-4200
IBK투자증권	1544-0050
KB증권	1588-6611
KTB투자증권	1588-3100
NH투자증권	1544-0000
SK증권	1599-8245, 1588-8245





03 생명보험사

이름	콜센터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1566-0999
교보생명	1588-1001
동양생명	1577-1004
라이나생명	1588-0058
메트라이프생명	1588-9600
미래에셋생명	1588-0220
삼성생명	1588-3114
신한생명	1588-5580
처브라이프생명	1599-4600
푸르덴셜생명	1588-3374
하나생명	1577-1112
한화생명	1588-6363
푸본현대생명	1577-3311
흥국생명	1588-2288
ABL생명보험	1588-6500
AIA생명	1588-9898
BNP파리바카디프생명	1688-1118
DB생명보험	1588-3131
DGB생명	1588-4770
IBK연금보험	1577-4117
오렌지라이프생명	1588-5005
KB생명	1588-9922
KDB생명	1588-4040
NH농협생명	1544-4000





04 손해보험사

이름	콜센터
하나손해보험	1566-3000
롯데손해보험	1588-3344
메리츠화재	1566-7711
삼성화재	1588-5114
악사손해보험	1566-1566
에이스손해보험	1566-5800
한화손해보험	1566-8000
현대해상	1588-5656
흥국화재	1688-1688
AIG손해보험	1544-2792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	1544-2580
DB손해보험	1588-0100
KB손해보험	1544-0114
MG손해보험	1588-5959
NH농협손해보험	1644-9000

참고

금융회사 콜센터 현황





05 신용카드사

이름	콜센터
롯데카드	1588-8100
삼성카드	1588-8700
신한카드	1544-7000
우리카드	1588-9955
하나카드	1800-1111
현대카드	1577-6000
BC카드	1588-4000
KB국민카드	1588-1688

06 기타 협회

이름	전화번호
은행연합회	02-3705-5000
금융투자협회	02-2003-9000
생명보험협회	02-2262-6600
손해보험협회	02-3702-8500
여신금융협회	02-2011-0700
저축은행중앙회	02-3978-600





MEMO

Large empty rectangular box for writing a memo.





| 집필 위원 |

[제2판]

주소현 이화여대 소비자학과 교수

차경욱 성신여대 소비자생활문화산업학과 교수

한지형 서울대 생활과학연구소 연구교수

성영애 인천대 소비자아동학과 교수

[제1판]

성영애 인천대 소비자아동학과 교수

김민정 충북대 소비자학과 교수

조혜진 인천대 소비자아동학과 교수

주소현 이화여대 소비자학과 교수

차경욱 성신여대 소비자생활문화산업학과 교수

| 검토 위원 |

최기영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교수

허수정 금융감독원 수석조사역

강의석 금융감독원 조사역





■ **금융교육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할 때**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www.fss.or.kr/edu)를 방문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금융과 관련해 민원이 발생하거나 궁금한 점이 생길 때**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로 연락하면 친절な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축과 투자, 부채 관리, 금융투자 시 위험 관리, 생활 관련 세금, 은퇴 준비 등에 대한 무료 금융자문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반짝반짝 은빛 노후를 위한 금융가이드 02

금융사기 예방과 노후자산 정리

발 행 일 2018년 12월(제1판)

2022년 3월(제2판)

발 행 인 정은보

발 행 처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www.fss.or.kr ☎02-3145-598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디자인·편집 (주)피와이메이트(www.pybook.co.kr ☎02-733-6771)

ISBN 979-11-90018-07-4 (13320)

* 이 책의 내용은 관련법규나 제도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사기 예방과 노후자산 정리



“이제 남은 자산만 믿고 살아야 하는데 혹시
금융사기라도 당하면 어찌죠?”

- ▶ 노후자산을 노리는 각종 금융사기의 유형과 예방방법
- ▶ 금융사기 피해 발생 시 대처방법 안내
- ▶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내 자산을 찾아보는 방법
- ▶ 상속과 증여를 위한 기초 개념과 세금계산방법 안내

비매품/무료

제작:



9 791190 018074 13320
ISBN 979-11-90018-07-4

후원: 전 금융기관 공동으로 조성한 새희망힐링펀드